

취향 포지셔닝

2021년 아트뷰에서는 예술적 취향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에 표지에 취향 포지셔닝을 좌표로 만들어 콘텐츠마다 고유의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취향 좌표를 통해 콘텐츠의 특징을 확인하고 독자개인의 예술적 관심도 및 성향에 맞는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Popular —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예술의 순간
동시대의 미감을 향유하고 문화와 예술이 삶을 물들이는 멋진 순간을 경험합니다.

Creative — 창의적인 작품 세계가 궁금하다면
아티스트의 실험적 해석, 분야간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여정에 동참합니다.

Origin — 본연의 가치에 무게를 두다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예술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충족합니다.

Artistic — 예술가의 취향을 공유하다
아름답고 극적인 작품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의 삶을 면면이 살펴봅니다.

2021 04+05 VOL.156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성남문화재단



미리보기
2021 마티네 콘서트



도시와 예술
베니스, 피노 컬렉션과 주더카 미술 지구



성남속으로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Popular

Creative

**Untact Online
Culture and Art
Education**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이달의 청년작가
2021 성남청년작가전 1
<박주영: 바람 부는 날>

04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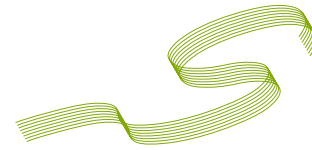
Origin

Artistic



내 손 안에, 우리 곁에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성남아트센터 Seongnam Arts Center

문화예술 애호가와 성남아트센터의 아름다운 동행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통해 성남아트센터가 세계 유수의 복합문화공간과 어깨를 겨루며 성장하게 돕고, 더 많은 사람이 성남아트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취지로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성남아트센터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최충열/박지향 (주)유엔젤 대표이사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주)인피콘 대표이사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솔라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철쭉회원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육선 이사

탄천회원

박 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 (주)씨너스 회장
최계순/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호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주)에징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김동기/김인숙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북극성제일치과원장.
전 성남시치과의사협회장
김영수/원종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중현/정송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전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남궁원/김순미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 지점장
남선우/정정섭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 원장
마희자/조득환 국제로타리 3600지구 전 총재
서진공방 대표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주)평화기업 이사

백중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손의명/손외자 손의명치과 원장 / 한국화가
송 자/탁순희 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이사.
전 (주)대교 이사장

신동화

오풍영/이승희 경기일보 상무
윤영상/박인영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최이성무/김복기 전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정식/고옥주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최이종덕/김영주 전(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총림자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지은/김순건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현주/김윤선 메리츠화재 부장 / AMK
장세영/김준식 삼성전자 상무 / L/F패션 전무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정은경/박민걸 세일기공(주) 대표
모란새로음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전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주)ING생명보험 명예전무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色> 전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한병무/최정자

허용무/구은희 (주)삼화 F&F 회장
허 참/홍애자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황광석/조영순 상아제약 회장 / 수필가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박명숙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림에이전시 대표
서정림
까지회원
우문식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장미영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 부사장

명예회원

신선희 무대미술가.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김진환 **부회장** 강호주 박지향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황광석 **감사** 김길복, 김문기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팩스 031-783-8020 이메일 mecenat@snart.or.kr

가입 기준	회원 구분	평생회비
법인(단체 포함)	은하수	1억 원 이상
	달무리	5,000만 원 이상
	무지개	3,000만 원 이상
	탄천	1,000만 원 이상
	철쭉	500만 원 이상
개인	이매	(5년)300만 원 이상
	까지	(2년)1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은 평생회원, 부부회원

2021 동시대 이슈전

판타지 Fantasy

2021. 4. 9 FRI - 6. 27 SUN

성남큐브미술관 기획 전시실

김익현 · 김진우 · 김희천
윤석원 · 이재원 · 조이경 · 허수빈



FONDAZIONE PRADA

패션이 사랑한 예술

밀라노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남부 지역 라르고 이사르코 Largo Isarco. 이곳의 쇠락한 공업 단지 약 1만9,000m²가 복합 예술 단지로 개관하면서 도시 전반에 활기차고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변화를 이끌어낸 이는 바로 패션과 예술을 사랑한 프라다의 디자이너 미우치아 프라다이다. 1994년 프라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 이후 2011년 베니스에 처음 프라다 파운데이션을 지어 그 여정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사랑하는 도시 밀라노에 폰다치오네 프라다를 통해 지역과 공간, 사람과 예술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공간을 완성했다.

이 여정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건축가인 렘 콜하스 Rem Koolhaas가 동참했다. 재활용 산업 공간은 예술을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진부하다고 판단, 대신 기존 술 창고로 사용되던 5채의 건물에 콜하스가 설계한 3곳의 건물(토레, 헌티드 하우스, 포디엄)을 더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관계성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해나갔다. 스토리텔링의 화자는 근현대 작가들. 이브 클랭이나 데이비드 호크니 등의 컬렉션을 선보이거나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미술관뿐 아니라 영화관, 아트 편집숍,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감독 웨스 앤더슨이 디자인한 카페 등을 경험하며 각자의 세계관을 넓혀간다.

글. 임보연 객원기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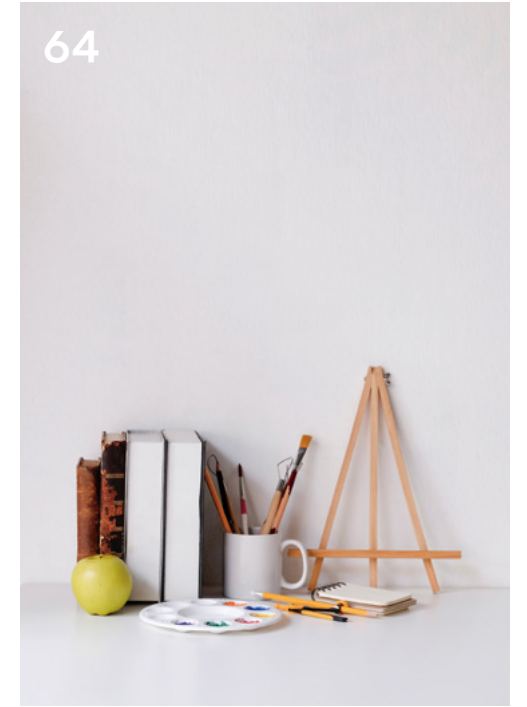
08



32



38



64

02 VIEWFINDER FONDAZIONE PRADA

- 08 **들어다보기**
삶, 예술, 기술의 조화를 기다리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 12 **칼럼**
'접속'으로 대치된 '접촉'의
감각을 기억하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창작자의 입장에서
- 16 **라운드테이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 24 **현장스케치**
지금 여기, 변화의 순간속으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으로 즐기기

- 28 **이달의 청년작가**
존재의 모든 순간
2021 성남청년작가전 1
<박주영: 바람 부는 날>
- 32 **미리보기**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만나다
2021 마티네 콘서트

- 38 **미술 속 심리를 말하다**
모두의 첫사랑, 빈센트 반 고흐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잘되기 마련이다
- 44 **디자인을 말하다**
빛의 양과 방향을 통제하는 조명 기구들
밤의 세계를 열다
- 46 **영화 속 클래식**
<언터처블: 1%의 우정>과
베버의 <마탄의 사수>
낭만적 우화의 이면
- 48 **문학, 문화**
직접 만드는 오디오북
책 낭독하고, 돈도 번다?
- 50 **트렌드**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열풍 혹은 거품? '인싸'들의 SNS
- 52 **도시와 예술**
베니스, 피노 컬렉션과 주데카 미술 지구
베니스 미술계의 조용한 지각 변동

- 62 **독립영화예술관**
영화 <담쟁이>
당신의 응답을 기다려
- 64 **성남 속으로 1**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구상을 위해
- 66 **성남 속으로 2**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어서와, 이런 영화는 처음이지?
- 6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격월간 아트뷰 2021년 04+05월호 통권 156호(비매품) 2021년 4월 1일 발행 등록번호 성남.마 00015 등록년월일 2005. 9. 12 간월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은수미 발행인 노재천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교열 이지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홍보미디어부
 전화 031-783-8024 홈페이지 www.snart.or.kr 편집·디자인 (주)에이커뮤니케이션즈 02-763-8600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트뷰>의 일부 기사는
 저시력자를 위한 음원 파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前성남미디어센터 시민라디오제작단 최윤진 님의 목소리 기부와 편집으로 제작되는 음원은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Untact Online Culture and Art Education

08 들여다보기

삶, 예술, 기술의 조화를 기다리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12 칼럼

'접속'으로 대치된
'접촉'의 감각을 기억하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창작자의 입장에서

16 라운드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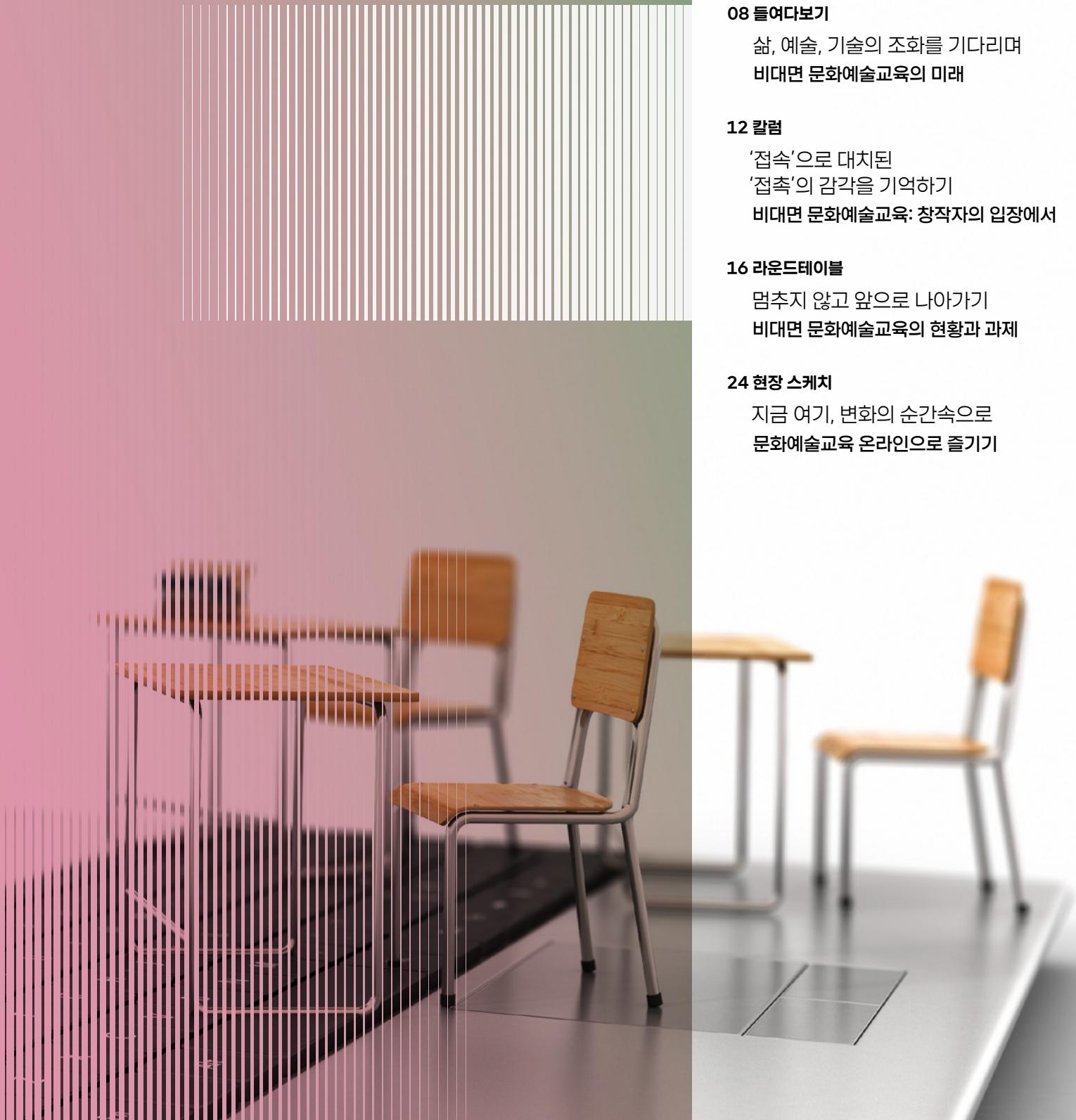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24 현장 스케치

지금 여기, 변화의 순간속으로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으로 즐기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이 일상화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현장의 예술 교육자들, 변화된 방식에 적응하는 학습자와 예술 애호가들, 이 사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 삶의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 또한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오늘날 문화예술계의 노력이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와 미디어센터 역시 다양한 강좌의 발굴과 도전을 통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Art Technology Harmony of Life

삶, 예술, 기술의 조화를 기다리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화두다. 202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려는 예술가들의 실험을 다룬 '예술 프리즘 Art Prism'과, 예술교육가들이 개방형 도구(키트)를 탐색하고 끝장개발대회(해커톤)를 운영해보는 '예술+기술(아트 앤 테크)' 사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술 프리즘'에서는 가상현실(VR)·조형, 그림(드로잉), 움직임, 시각예술, 연극 등 총 5개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시연했다. '예술+기술(아트 앤 테크)'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재)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퓨처랩)가 협업해 개방형 도구(키트)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 끝장개발대회(해커톤)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예술교육가 총 100명이 각자의 작업을 수행해본 뒤, 각각 10여 명의 일반 시민들과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하는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도구(키트)를 활용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방식에 대한 교육모형(모델)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VR 기술을 활용한 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각 대학에서는 실습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가상 환경 virtual reality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예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특히 실습 교육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시도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아래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활 속으로 다가온 AR과 VR

사우스웨스트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범죄 현장 기술 프로그램의 학생들이 범죄 현장 조사에 대해 배우기 위해 증강 현실 AR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 현실 웨어러블 기기 홀로렌즈 Hololens의 게임 앱 프래그먼츠 Fragments로, 사용자는 '탐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학생들은 결국 업무에 사용할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극 수업에 이러한 증강 현실을 이용한다면 어떨까? 각 배역이 자신의 배역을 중심으로 다른 역할과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무대 현장을 몸에 익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농업 프로그램 교수들은 VR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식물 질병을 식별하도록 가르치는 확립된 기술인 '작물 산책'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한다. 직접 걷는 것은 특정 계절에만 가능한 반면, VR의 장점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림이나 조각 등의 시각예술을 감상하거나 그리려는 대상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데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 RIT MAGIC Spell Studios

로체스터 공과대학의 매직 스펠 스튜디오. 기업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몇몇 의과대학들은 VR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인체 해부학의 복잡성에 숙달하고 가상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과 같은 섬세한 수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VR은 학생들에게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진은 수술대 형식의 디지털 가상 해부 테이블 Anatomage Table과 같은 도구가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의 의사들을 훈련시킬 때, VR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을 준다. 즉, 다른 사람의 경험에 직접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은 오쿨러스 리프트 시스템 Oculus Rift System과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노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더 공감하는 간호인이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통찰력을 습득할 수 있다. 이 역시 연극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VR은 새로운 예술 형태, 즉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VR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는 오로지 이를 개발하는 이들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이다. 또한 VR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가속화하면서 예술적 상상력의 가치는 급상승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과 학교가 배출하는 인력이 달라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융복합 교육에 있어 예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융복합 교육의 상황을 들여다보자.²⁾

문화예술교육, 기술을 만나다

비즈니스 스쿨로 유명한 알토대의 ADF(Aalto Design Factory)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 교수, 연구원, 경제학자들과 디자인이

너가 협업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다수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됐고, 대표적으로 '앵그리버드 Angry Bird'를 개발한 로비오 Rovio와 '클래시 오브 클랜 Clash of Clans'의 개발사 슈퍼셀 Supercell이 있다. 또한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스쿨은 2014년 개교 이래 학생들이 7개 국가를 돌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기숙사에 머물며 인턴십에 참여하고, 2학년부터는 서울과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7개 도시를 이동하며 각 지역의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평소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실습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는 것이다. 전공은 예술·인문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경영학 등의 분야가 있으며 모두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융합 전공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네르바 스쿨은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믹싱으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 고개를 가우뚱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글이 왜 VR 등 첨단 기술과 융복합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는지 의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그 목적을 "4차 산업 혁명 시대 신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이 문예회관에서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만나고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진로 탐색이

디자인과 경영, 기술 부문에 특화된 핀란드의 알토 대학. 핀란드 스타트업의 절반을 배출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1) <https://edtechmagazine.com/higher/article/2017/05/virtual-reality-coursework-provides-rich-training-ground> 참조 (검색일: 2021. 3. 20)
2)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9061> 참조 (검색일: 2021. 3. 20)
3) <https://www.rit.edu/news/rit-announces-investments-magic-spell-studios> (검색일: 2021. 3. 20)
4) 고영직,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미적 인간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살림터, 2020)

가능하도록 해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소 관변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필자는 동의하는 바이다. 이제까지 국내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왔던 '삶과 예술의 결합'이 더 강력해져야 하고, 그러므로 예술과 기술의 결합 또한 더 긴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로 인한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경천동지 하도록 바꾸고 있고 이 속도는 코로나로 인한,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 지구적 차원의 감염병 때문에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 급변하는 사회에서 낙오하는 자, 곧 기술 발달로 인해 직업을 잃는 자, 고립되는 자가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이 문제의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변화가 기술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인간중심적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예술적 관점과 방안 제시는 중요하며, 문화예술교육 또한 그 외연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일례로 VR 개발 비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공격 자금을 의존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기업과 같은 민간 자원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로체스터 공과대학(이하 RIT)의 매직 스펠 스튜디오는 민간 협력의 대표적인 예다.³⁾ RIT는 뉴욕주에서 1200만 달러, 컴퓨터 제조사 델Dell에서 300만 달러, 시스코 시스템스Cisco Systems에서 124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은 RIT의 학술 프로그램과 컴퓨터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사업화에 필요한 첨

단 시설을 연결하는 대학 프로그램인 매직 스펠 스튜디오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RIT 캠퍼스 내 새 건물에 들어설 최첨단 아트스튜디오는 향후 10년간 1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5년 안에 35~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기업들과 함께 RIT 학생들이 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바로 이곳에서 그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 사례를 문화산업, 곧 산업화되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과정과 생산물이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실현될 경우 기업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본다. 기술친화적 문화예술가를 키워내고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은 기업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과 기술의 적극적인 결합, 이를 위한 기업 등 민간 자원의 확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람과 예술의 얼굴을 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고영직이 말하고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자들이 단순한 기능주의자가 아니라 의미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는 것"⁴⁾이기 때문이다.

글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문화예술경영 전공주임교수
15년차 온라인대학(경희사이버대) 교수로 일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경험을 쌓아왔다. 일 시간 온라인 강의를 주는 '대면성'에 익숙해 있는 터라 최근 쓰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표현이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원이자 문화연대 집행위원이다.

'접속'으로 대치된 '접촉'의 감각을 기억하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창작자의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예술 전공생들과
마주한 교단에 선 나 역시 학생들처럼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방역 지침에 따른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었던 작년을 떠올리며,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번 학기의
등록 여부를 고민했을 터였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 unsplash_xps

Sense of Direction: 예술과 예술교육에 시작된 변화

마스크 위로 남겨진 두 눈에 서린 질문 앞에서 교수자의 손에 맡아진 지도가 완벽히 백지라는 것, 오히려 내 앞에 선 그대들에게는 단련된 엄지손가락과 스마트한 도구가 있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현실을 고백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책장 한 칸을 다 비웠다. 코로나19 이전의 미래학, 예술론이 더 이상 유용한 말을 건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테크놀로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예견하는 미래학 관련 책을 들 일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없는 일상, 개별화된 삶 속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논하던 불과 1년 전 예술교육담론을 돌이키기 전에, 급변한 일상과 창작 현장에서 무엇을 통찰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남아 있는 질문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손을 씻을 수 없다. 변한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지금 소용돌이치는 급류 앞에서 한 번도 몰아본 적 없는 카약을 몰고 물살을 타야 살아남는다는 중용처럼 들리기도 한다. 예술은 시대에 따라 그 질문과 형태를 달리해왔다. 그러나 예술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작품과 이를 표현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외형적 변화만이 아닌, 인간 존재 [being]가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삶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의지와 관련된다. 작품 소개와 예술 프로그램의 장이 비대면·비접촉 상황 속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된 현실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의 생산자가 된 예술가와 예술강사²⁾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새로운 카약을 타고 서툰 운전을 시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 예술교육의 투쟁

방역 지침으로 공연장이 문을 닫으며 공연예술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연계 매출은 전년 대비 75% 이상 감소했고, 2020년은 온라인 공연의 원년이 되었다.³⁾ 온라인 콘텐츠를 감상하는 유저와는 비대면이지만 공연을 만드는 창작자들끼리는 대면해야 하

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었다. 마스크를 쓴 채 연습을 진행하고, 공연 예정일에는 관객 없는 무대에서 '사전 촬영'한 작품이 업로드된 채널 링크가 날아왔다. 학교나 문화 시설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업했던 예술 강사들은 바쁘게 영상 전문가를 섭외해서 수업 대체 영상물을 만들거나 실시간 줌zoom 미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났다. 수많은 창작자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자로 나서야 했던 한 해였다.

단순히 일상적 도구의 변화 또는 확장의 측면을 강조해 '온라인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기란 쉽지 않다. 예술가의 입장에서, 영상물을 통한 창작과 소통 방식의 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과 감각을 구사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극배우의 연기술은 영화 연기와 다르다. 한 면 앵글을 향해 연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사나 움직임도 작품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서 독특한 양식을 띤다. 영상으로 송출된 연극 작품을 보면 이전에 연극을 접해보지 않은 시청자들의 눈에 뭔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간혹 연극무대 출신 배우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했을 때 다른 배우들과 연기 톤이 다르게 느껴지거나 감정이 과잉되어 보이는 것도 그런 경우다.

몇 달 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 극단의 아동극을 관람했는데, 영화 기법을 쓴 화려한 편집술에도 자연스러운 관극이 힘들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형이었다. 중립적인 표정으로 멈춰 있는 오브제인 인형이나 가면mask은 그 오브제를 다루는 배우의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 있는 인물로 보이도록 현장의 일루전illusion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형은 봉제인형이었는데 영상으로는 전혀 그 생명력이나 환상이 전달될 수 없었다. 그것은 배우의 조종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질과 양식이 영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가 '편집'을 통해서 보는 방식을 컨트롤하는 것과 달리 연극은 현장에서 관객의 눈을 통해 관객 스스로 편집해서 보게 하는 라이브 아트이다. 그래서 영화적 미장센(무대 위에 시각적 요소를 배열하는 작업)

과 연극무대의 상징적인 양식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아동극이나 코미디처럼 관객의 라이브 반응에 달라지는 연기의 묘미를 어떻게 무관중으로 촬영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연극의 영상 송출 서비스를 통해 연극 관객층을 확대할 수 있을까? 영상물로 예술이 대체되는 '매체의 변화'라는 것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낯선 언어와 감각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과 같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 도구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역시 실시간 접속 방식이든 무한 송출 가능한 콘텐츠 제작이 되었던 속제는 다르지 않다. 오히려 어린이·청소년처럼 참여적이고 감각적인 만남이 필요한 대상에 물리적 거리를 둔 랜선 만남은 끊임없이 집중할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 오프라인에서 잘 집중했던 아이들이라 해도 화면을 끄거나 이탈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럿이 접속한 환경에서 말과 말 사이의 간극은 소통의 버퍼링을 만든다. 온종일 온라인으로 교과 수업을 들은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온라인 예술 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가 수업을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감각 경험이 시각물로 대체된 채 진행되는 예술 수업 방식에 대한 회의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예술인 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예술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필요성 - 영상 콘텐츠 제작의 문제를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 - 을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 시대, 예술과 예술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형성을 탈피하는 개인의 감수성을 깨우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콘텐츠로 개발된 예술 관련 강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생활 속 공예품 만들기부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등 다양하다.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 키트처럼, 몇 단계를 거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창작 키트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 가볍고 경쾌한 놀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에 대해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정관념을 부수고, 아름다움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독창적인 시선으로 사물과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일상으로 초대된 예술교육은 더 이상 예술의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학교와 시민을

위한 예술교육은 '예술하는 마음' '창조적인 놀이 본성'에 주목하고 감각을 깨워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⁴⁾ 팬데믹 시대에 예술경험이 중요해진 것은, 여가 활용과 교양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술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예술 행위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개인, 예술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사람, 개별적 존재에 집중해서 볼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만들어놓은 예술적 생산물product만이 아니라 과정process의 측면이다. 행위의 이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경험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지닌 개별적 감각과 감수성이 중요하다. 특히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은 '무엇을 느꼈는가?'이다.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하고 자기다울 때, 바로 '자신만의 것'이 발현된다. 그러한 독창적인 감수성을 키워가는 것이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 예술교육이 늘 해왔던 일이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익숙한 질문이 들어 있다.

'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나의 감각은 어떻게 느끼는가?'

나아가 상대방의 경험과 감각에 '나'를 실어서 되짚어보는 공감과 소통 역시 '함께 경험하는' 예술교육에 담겨 있다. 어쩌면 예술 경험이 초대하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더욱 강력해졌다. 예술 키트와 콘텐츠들은 학습자를 안전하게 결과물까지 인도할 수는 있지만, 길을 잃고 찾아가는 경험, 즉 스스로의 느낌을 표현하는 형식을 찾아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헤매볼 수 있는 경험이 결여된다면 이면에는 감각적인 아쉬움이 따라붙는다.

결국 나의 감각과 직관을 따라가는 프로세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감정의 낯선 길을 가야 한다. 뻘하고 흔한 경험일지라도 내가 처음 겪은 느낌이라면 그것은 '태초'의 것이며 나만의 우주 속에 처음 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교훈이며 오래된 미래이다.

예술과 놀이, 오래된 미래

예술의 경험은 내 감각과 삶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아닐로그와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예술의 감각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감각

1) 연극, 시각예술, 무용, 문학, 음악, 전통예술 등과 같은 문화예술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형태를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부른다. 시간 단위로 나누어 시행되는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내용과 목표,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교육'이라는 말보다 그 예술성을 강조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으로 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글에서도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호칭하려고 한다.

2) 이 글에서 언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학교 교사가 아닌 예술가/예술교육가에 의한 예술 콘텐츠를 의미한다.

3) 인터파크, 2020 공연 시장 결산 발표(2021.2.24)

4)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118>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문화정책리뷰(2020) [호외: 팬데믹과 문화정책] 제한된 감각의 열망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다.



© 최재우

적인 경험을 열어줄 수 있을까? 나 역시 지난해 공연 한 편과 몇 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단계별 방역 기준의 준수 속에,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접촉과 대면을 만드는 실험이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창작진, 예술교육팀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기관 기획팀까지, 모두의 고군분투는 엄청났다.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지침에 귀 기울여야 했을 뿐 아니라 창작진과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했다. 예산을 쓰는 방식도, 프로그램의 실행 기간도 바뀐 것은 물론이다. 그중 하나가 '충동과 도전, 비상飛上하는 이카루스'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과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만들어낸 오프라인 워크숍이다.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으로 대체된 일상을 보낸 중고생들이었기에, 이들의 감각이 개별화되어 있거나 낯선 관계들에 긴장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놀랍게도 빗나갔다. 밀도 높은 만남 속에 그간 응축된 감정의 농도가 진하게 풀려나갔다. 참여했던 학생들이 주로 꺼낸 키워드는 '연결'과 '호기심', 미국 속에 남겨진 아버지와 아들, 두 인물 간의 유대와 사랑, 그리고 독립이었다. 이 작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상을 우울하게 예견했던 서툰 점사를 제치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와 공감, 이해와 공존의 감각임을 시사해주었다. 삶과 인간을 향한 근원적인 소통의 전제가 사라진 예술 콘텐츠는 스스로 정체성을 기만하는 것이자 그저 소비되는 콘텐츠로 전락시키는 도구의 역습이 아닐까? 결국 문화예술교육의 온라인화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떤 관계망을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휴머니즘의 감각이다. 이를 위해 원초적인 몸의 감각, 감정에 대한 센스를 트레이닝하는 오프라인에서의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온라인으로의 소통공간의 확장이 주는 도전은 결국, 인간 다음으로의 회귀이다.

글 양혜정 연극놀이전문가
1999년부터 연극을 매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강의 중이며, 구리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연극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는 대면 오프라인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감각을 여는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역시 유례없던 위기를 맞았지만, 멈춤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치열한 모색은 이어지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와 미디어센터 역시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발굴·진행하며 현장의 변화에 대응 중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 역시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는 지금, 재단의 교육 기획자와 예술강사들이 함께 모여,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현장의 노력과 변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3월 11일(목) 10:00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세미나실

진행
남소연(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참여
김종현(아트디렉터, 해외공모전 플랫폼 아트다츠 대표)
윤용훈(미디어 강사, 어반아츠 프로젝트 대표)
장수정(일러스트 작가)
김영태(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대리, 성남미디어센터 교육기획)
안정미(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대리, 아카데미 교육기획)

바쁘신 중에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재단의 교육 기획자, 그리고 예술가로, 문화예술 교육자로 현장에서 활동 중이신 강사님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용훈 성남미디어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해온 윤용훈입니다. 성남꿈꾸는예술터에서는 개관 전부터 대표 강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여러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심 문화예술교육단체 어반아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김종현 이번에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 미술 컬렉터 강좌를 진행한 김종현입니다. 전시기획과 여러 외부 강의 진행, 또 본업으로 해외 갤러리의 한국 오퍼레이팅과 국내 갤러리 및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김영태 성남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교육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강좌와 미디어스쿨, 학교연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장수정 일러스트 작가 장수정입니다. 일러스트 작업 외에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일러스트 실기 강좌를 줌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미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에서 아카데미 성인 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ary: 현재에 기반해 가능성을 논의하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교육계 현장의 변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목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실제 체감하신 변화가 궁금한데요.

김영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격상 변화에 따라 기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성남미디어센터 역시 많은 미디어 강좌들이 개설과 폐강을 반복했습니다. 자연히 소속 강사님들의 활동 영역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강좌 개설-폐강-수강료 환급, 비대면 전환의 무수한 반복으로 담당자의 업무량 역시 몇 배로 증가했죠. 이후 실시간 온라인 강좌, 강의 콘텐츠 업로드 등 현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적극적인 대면 강좌 개설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정미 아카데미도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정확한 재개 시기를 답변해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휴강을 계속하다가, 작년 여름 어린이 특강부터 조금씩 온라인 강의를 시도했죠. 성인 대상의 비대면 온라인 강좌는 지난 11월에 첫 시범 운영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3월에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김종현 저 역시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죠. 미술계는 팬데믹으로 많은 오프라인 갤러리들이 문을 닫았고, 바젤 등 3대 아트페어도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옥션도 현장 응찰이 어려우니 아예 온라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고요. 다만 옥션계는 팬데믹 이후 800억짜리 작품이 낙찰되기도 하고, 적응력이 빨랐어요. 전체적으로는 미술 시장 규모 자체의 변화에 주목할 만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유동성 장세로 투자처를 모색하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고, 젊은 컬렉터의 수요도 많아졌어요. 지난 3월에 열린 화랑미술제가 역대 최대 관람객,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윤용훈 지난해 처음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다들 난감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미디어 교육자인 저 역시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습득할 지언정, 낯설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뵈는 선생님들을 얼마 전 다시 만나 뵈니 이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현장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다는 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많은 교사들이 마찬가지이시리라 생각해요. 2020년이 비대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적응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의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전환 과정에서 콘텐츠 개발과 전달 방식, 학습 효과 등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죠. 줌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한계, 비대면 환경 속 디지털 격차 등은 수업 참여자뿐 아니라 강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었을 텐데요, 온라인 강의에서 느끼신 한계, 또 반대로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장수정 사전 제작 콘텐츠 업로드는 실시간 강좌보다 좀 더 널리 배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진행하셨는데, 저는 영상 제작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강사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위기의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좀 활용법을 더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면 강좌라면 '이렇게 섞으세요' 한마디로 끝날 부분도 쉽지 않죠. 모니터 환경에 따른 색감 차이, 세부 디테일의 카메라 포커싱, 화면상으로 붓의 사이즈를 가늠하기 힘든 점 등, 과정마다 세심한 안내가 필요해요. 또 대면 수업은 각 학습자의 수준과 진도에 따라 맞춤 지도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강좌는 모든 분들의 진도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느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마다 수업 만족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용훈 줌은 본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한계가 존재해요. 상대의 디테일한 제스처나 표정까지 표현

하기도 어렵죠. 그래도 당장 새로운 플랫폼이 없으니, 줌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머지 않아 VR/AR 오피스처럼 가상공간에서 나의 아바타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다양한 방식의 또 다른 플랫폼 개발과 더불어, 그 틀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김종현 저도 원래 수강생들과 눈도 마주치고 질문도 많이 주고 받는 스타일인데, 온라인 강의는 일방적으로 제 얘기가 전달되는 형식이라는 점이 아쉽죠. 정말 물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점이 쉽진 않아요(웃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난 학기 대학에서 미술 진로 세미나 과목 강의를 진행했는데, 온라인 진행 덕에 현업에 계신 외부 강사들의 특강 섭외가 수월하더군요. 그분들이 계신 공간에서 짧은 시간만 할애해주시면 되니까, 멀리 해외에 계신 분도 초빙할 수 있게 된 거죠.

윤용훈 온라인은 뭔가 심 없이 계속해야 하는 압박이 생기는 환경이라, 대면 수업 대비 강좌 시간의 조절도 필요해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집중 가능한 시간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강의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여백은 필요하거든요. 코로나라는 외부 계기로 생긴 변화들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비대면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을 고민하는 과정이 이어져야겠죠.

기관 역시 방역 지침의 변화에 따라 운영 여부가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강의 운영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런 혼란과 별개로 비대면 시대에 문화예술기관이 지고 가야 할 책임감, 역할에 대한 부담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안정미 가장 큰 걱정은 재단 담당자 역시 줌을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 숙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야 수업 기획과 강사님들과의 협의, 현장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또 온라인이라는 환경상 개설 가능한 과목의 폭도 한계가 있었죠. 특히 지난 11월 1차 시범 강좌 때만 해도 줌 수업이 가능하신 강사님들의 섭외가 쉽지 않았어요. 장수정 선생님께서는 1차 수업에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몇 배로 익숙해지셔서 깜짝 놀랐죠.

어쩌면 이런 비대면 상황을 계기로 아카데미 역시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새로운 기획 과정을 통해서 이전의 방식이나 대상, 내용 등을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태 성남미디어센터 교육 강좌 역시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죠. 강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성남시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교육의 교원 연수, 아프리카TV와 연계한

“내가 어디에 있든, 휴대전화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한 접근성은 온라인 강좌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김종현(아프리카TV 센터, 해외공모전 플랫폼 아트디자이너 대표)



윤용훈(미디어강사, 아반이츠 프로젝트 대표)

“온라인의 한계가 있다 해도, 그 속의 진정성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합니다.”

실시간 교육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90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했는데, 1편당 200명 정도는 접속, 참여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미디어센터 특성상 강사님들 역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많았으니 비대면 전환이 상대적으로 원활했고, 강사 간담회 등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흘러간 편입니다. 다만 미디어센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시스템과 장비를 활용한 교육 비중이 커서, 이 부분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역시 놓을 수 없으니까요.

학습자 입장의 장단점, 학습의 실효성 부분은 어떻게요?

장수정 온라인 형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수강생이 많았어요. 이전에는 학기제 강좌에 오랫동안 참여하신 분들, ‘그림

좀 그려본’ 분들이 수강했다면, 지금은 단기 회차에 온라인이다 보니 수채화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을 덜고 시작한 거죠. 특히 주부 수강생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림에 대한 도전 기회를 많이 넓혀드린 것 같습니다.

윤용훈 저는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토요일다락문화학교,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이 의도치 않게 비대면으로 변경되며 염려가 많았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참여자들이 비대면을 더 편하게 느끼시는 거예요(웃음). 내성적인 학생, 남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이런 환경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두각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 예술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함인데, 온라인의 한계가 있다 해도 그 속의 진정성과 요소들에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런 시도가 지속되어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안정미 김종현 선생님의 강의를 예로 들면, 강의실에 입장한 뒤에도 카메라를 켜지 않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반응을 알 수가 없어 걱정했는데, 막상 수업 후반 질답 시간이 되면 질문도 많고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친화적이고 적극적인 수강생들도 있겠지만, 혼자 조용히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성향의 수강생에게는 비대면 형식이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현 저도 질문이 많다는 점이 좋았어요. 강의를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내가 어디에 있든, 휴대전화만 있다면 참여가 가능한 접근성은 온라인 강좌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팬데믹 상황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딱 구분 짓기보다 강의 특징에 맞춰 조율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봐요.

윤용훈 비대면 속 커뮤니케이션 에티켓의 공유도 필요해요. 저는 우선 참여자분들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요. 소통을 위한 틀인데 정작 얼굴을 가리고 화면을 켜지 않거나, 아이들의 경우 화면 옆

으로 빠져 있거나...(웃음). 참여자분들도 온라인 수업 역시 소통의 한 부분이고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해요.

김영태 미디어센터도 중장년층 수강생이 많다 보니 좀 다운로드 부터 진행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라 새로운 배움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또 요즘은 워낙 다양한 미디어 앱이 많아서 관련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정미 중장년층 수강생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를 어려워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첫 수업에서 해매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 11월 시범 수업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에 적응하신 거죠. 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미 익숙하시고요.

잠깐씩 언급하셨지만, 온라인 강좌의 특성상 커리큘럼 개발과 기획 단계부터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여러 요소를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안정미 처음 비대면 강의 기획 단계에서는 사전 제작 콘텐츠도 고민했는데, 차별화를 위해 전문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진행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사실 유튜브만 봐도 정보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실시간 장점을 살려 수업 중에 열심히 소통해주십사 강조드리기도 했죠.

해설 강좌는 그래도 익숙한 PT 기반이라 괜찮았지만, 미술 실기는 화면 전환이나 화질 등 기술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았어요. 기존 오프라인 강좌라면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게 당연하지만, 실시간 온라인 강좌는 강의 진행과 모니터링이 동시에 필요해서 그게 불가능해요. 저와 다른 직원이 함께 채팅창을 체크하고, 강의 내용에 맞춰 화면을 전환하고, 놓치는 질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실상 수업을 함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웠죠.

미디어센터 상황은 어떠셨나요?

김영태 일일이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을 상황이 아니니, 홈페이지에 설문 조사도 올리고, 최대한 강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진행했어요. 실시간 강좌 진행과 사전 제작 강의 콘텐츠는 기본이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디어 강좌들도 추가적으로 기획했죠. 지난해 실시간 무료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 성남시 교원 연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전파할 수 있고, 학생들도 그 영향으로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교원 연수를 수강하신 선생님은 96명이지만, 그 수업을 들은 제자들은 몇 천 명으로 퍼져 나갈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양질의 미디어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공공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비대면 수업의 경우 크게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 학습 콘텐츠 사전 제작 후 업로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수정 사전 제작은 의외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동 대상 수업 영상 콘텐츠와 아트 키트가 합쳐진 구성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 혼자 따라 하긴 어렵거든요. 15분 내외 강의라 해도 아이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재료를 만지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까지는 고려하지 않죠. 보조 강사님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윤용훈 사실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그쪽에서는 돌봄적 의미도 크거든요. 시간적으로 그 아이를 돌보면서 무언가 체험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제작 콘텐츠보다는 zoom을 선호할 수 있죠. 다만 zoom은 시스템과 세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강사의 영역으로 넘기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또 zoom 수업이라도 제



장수정(인리아트 작가)

“온라인 형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수강생이 많았어요. 그림에 대한 도전 기회를 많이 넓혀드린 것 같습니다.”

작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좋죠. zoom이 소화하지 못하는 더 좋은 화질, 좋은 사운드로 접해야 하는 부분은 콘텐츠 활용이 효과적이니까요. 다만 온라인 수업의 사전 세팅이나 AS, 제작 부분 모두 에너지의 쓰임이 다른데, 단순히 강의 예산은 얼마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접근 방식은 강사 입장에서 힘들어요.

김영태 zoom 수업도 준비 사항이 많죠. 노트북에 헤드셋과 마이크는 기본이고, 다양한 전문 장비를 갖춰야 양질의 강의가 가능합니다. 강의 진행 시에도 출석 확인, 자료 업로드, 그 외 테크니컬한 체크 등을 위해 보조 인력은 필수적이라, 강사 혼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관이나 학교 등 운영 주체의 이해도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의 서포트와 유연성에 따라 강사가 아우를 수 있는 범위도, 그에 따른 교육의 질도 달라지겠지요.

윤용훈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나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상황 변화에 맞춰 비대면으로 전환하며 연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20차시 중 후반 5차시 정도 운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런 점에선 성남문화재단이 조금 더 조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하던 특수학급 수업은 지난해 수업이 없었어요. 사실 특수학급 수업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컸죠. 그래도 성남미디어센터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 편입니다.

장수정 어느 기관에서 zoom 강의를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실기 수업은 zoom 강의라도 현장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럼 못 하겠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강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당연시하는 곳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실기 수업은 재료도 많이 펼쳐야 하고 화면 전환이 많은데, 혼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는 실기 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zoom 강의도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진행했는데, 담당자들께서 현장에서 수업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을 잘 도와주셔서 편하게 수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번 3월의 아카데미 온라인 특강이 모두 잘 마무리되었는데, 전반적인 수강생 만족도는 어땠나요?

안정미 재수강 의향은 100%에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7점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무료 강좌의 영향이 있었겠죠.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유료 전환 시 적정 수강료인데요, 하반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유료 전환도 고려해야겠지만, 여러 부분을 감안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은 상황이 어떤가요?

안정미 아직은 온라인 강좌의 전면 운영보다는 녹화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이 많아요. 대부분 무료 진행이고, 유료는 회당 1,000~2,000원 책정이 많죠. 지자체 운영 기관의 경우 대면강좌의 공백 해소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태 전국미디어센터협회 소속의 40여 개 센터 상황을 살펴 보면 대부분 무료 진행이 많습니다. 아직 온라인 수강료나 강사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무료 진행이라도 시도가 중요하겠죠. 미디어센터와 아카데미 모두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그냥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온라인 강의로 선정 기준도 지금은 과도기 상태죠? 강의와 별개로 강의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감안할 부분이 많을 수 있겠네요.

안정미 아카데미 강사료는 일부만 정액제로 진행되고, 대부분 수강료의 절반을 사후 정산으로 지급해드리는 비율제 진행이 많아요. 무료 온라인 강좌는 비율제 진행이 불가능해 내부 세칙 기준에 따라 정액제로 강사료를 지급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금액이 크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 크죠.

비대면 교육이 고민해야 할 여러 요소들,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네요. 또 앞으로는 꼭 재난 상황이 아니라도, 비대면과 대면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 하나의 수업 방식이 되리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비대면에도 나름대로 확실한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일한 주제의 미술 시장, 컬렉팅 수업이라도 학교 수업인지, 문화센터 수업인지, 컬렉터 대상의 외부 갤러리 강의인지에 따라 각 수강생들의 질문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미술품 알고 감상하면 좋지'와 '내가 가진 작품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갤러리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궁금증 해결이 필요한 컬렉터들에게는 온라인이 별 장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처럼 시민 대상의 강좌, '아이도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강의 들으러 오가는 시간이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의 지식이 궁금하다'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의 장점이 커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사회 분위기가 암울하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안정미(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대리, 아카데미 교육기획)

“지금의 현실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또 미디어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김영태(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대리, 성남미디어센터 교육기획)

꾸준히 발전하리라 봅니다.

윤용훈 비대면 수업은 수업이 종료되면 뭔가 휘발성이 커요. 모든 것이 모니터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 그런 아쉬움을 잡아주려면 적어도 어느 시점에는 직접 만나서 인간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나의 완성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이 더 커지리라는 전망 속에, 그런 고민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안정미 대면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비대면 수요는 분명 존재하리라 봐요.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도 공연장과 미술관을 갖춘 본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연계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기획공연·전시와 관련 강의를 결합하고, 이론과 실제 감상으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온라인 이론 학습 뒤에 강사님이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며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거나, 공연 전후의 강의와 실제 감상을 이어가는 식으로요.

김종현 국내외 주요 미술관들이 온라인 전시, 360도 카메라 라이브 뷰잉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제 감상과는 다를 수밖에요. 평면 작품을 2D, 조각은 3D로 보여준다 해도 결국 내 휴대전화 액정 안이거든요. 그런 갈증에 대한 반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화랑미술제입니다. 정말 예상외로 엄청난 인파가 찾았어요. 아무리 온라인의 장점이 있다 해도, 결국 실제로 봐야 하는 건 봐야 하는 거죠. 요즘 핫하다는 클럽하우스에서도 온라인 감상과 미술 토론이 많지만, 이미지 링크를 공유하며 얘기하는 건 한계를 느껴요. '이 작품의 사이즈는 10m×20m'라 캡션에 쓰여 있어도 결국 내가 보는 건 휴대전화 액정 8cm가 전부잖아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런 아쉬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정미 생활이 뻘뻘해지면 문화예술 소비를 가장 먼저 줄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암울하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

은 결국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거리두기로 답답한 상황에서, 잠깐 이나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서 정말 좋았다”는 후기가 정말 보람 있었어요.

강수정 미술이든 독서든, 결국 문화예술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두어야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안 돼'라는 인식을 바꾸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시도한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영태 온라인 무료 강좌 콘텐츠에 접속한 많은 분들의 흔적을 볼 때마다, 지금의 현실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또 미디어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미래 혁신시대의 트렌드, 그리고 수강생들의 니즈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의 융합은 물론, 미디어 창작과 놀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까지 현장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계속 살피고 적용하며 만들어나가야겠죠.

김종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강점들을 개발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지리라 봅니다.

윤용훈 학교를 가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소식은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가정과 환경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외부와 고립된 소통의 단절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 봐요. 그런 점에서 비대면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되 스킨십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야죠.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혹은 사람과 사람이든, '소통'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택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과 사람의 유대와 소통이라는 점을 계속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사진 최재우

지금 여기, 변화의 순간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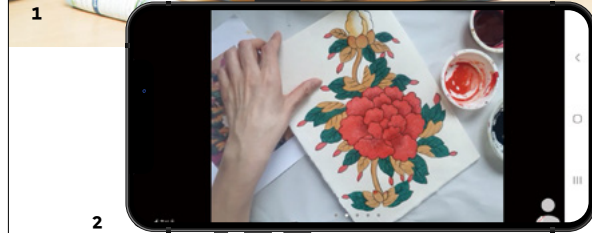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으로 즐기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비대면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들어왔다. 키오스크 확산, 온라인 쇼핑의 다양화, 언택트 여행 등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정착했고 이어 온라인 콘서트, 영상 전시까지 문화예술계로 확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곳 성남에서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통해 일상 속 예술의 감동과 여유를 이어가고자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3월 어느 오후 2시의 풍경

Zoom 화상회의 사이트를 열어 접속을 한다. 강의 시작 5분 전, 화면에 하나둘 수강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각자 지난 수업에 이어 미완성된 민화화 두 개의 붓을 가지런히 노트북 앞으로 정리해둔다. 드디어 2시, 유한이 작가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민화>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어요?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림을 한 번씩 볼까요?” 유한이 작가의 말에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 전원도 일제히 화면에 본인의 그림을 들어 보인다. 고운 색상으로 한 차례 색을 입힌 꽃은 오늘 음영을 더하고 세밀한 선을 그려 완성이 될 것이다. 실기 강좌의 정원은 7명, 덕분에 조금 더 친밀하고 세세하게 학생들의 진도와 그림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오늘은 꽃에 음영으로 입체감을 주는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설명과 함께 화면에 유한이 작가의 그림과 붓을 든 손이 보인다. 짙은 붉은색 물감을 만들어 붓 끝에 살짝 묻히고 맑고 투명한 붉은색 꽃잎 안쪽, 겹치는 부분에 칠한다. 색 사이에 경계가 생



1

2

기지 않도록 보드랍게 풀어주는 동작을 하고 나면 이제 수강생들 차례. 작가의 시연을 본 뒤 각자의 속도로 그림을 완성해가기 시작했다. 사이사이 그림을 보여주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때때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다. 어느새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났고, 화면 속 그림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진짜 완성성은 각자의 숙제로 남았고, 궁금한 내용은 일주일간 밴드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다.

깊이와 전문성을 담다

2021년 2월에 개강한 성남아트센터 성인 비대면 아카데미 강좌는 총 8개의 강좌로 구성되었다. 실기 강좌는 정원 7명의 소수 정예로, 이론·인문 강좌는 정원 20명으로 진행이 되어 강좌의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카데미 담당자들이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온라인 강좌 진행 역량을 갖춘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타 온라인 강좌 제공 사이트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에 이미 문화예술 강좌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두

1,3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의 성인 온라인 강의 중 장수정 작가의 수채화 강좌
2 유한이 작가의 민화 강좌

Now & Then: 뉴노멀 시대의 문화예술 향유법

러한 차별화를 두고자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하고,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실시간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문의 사항이나 피드백에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밴드 등의 커뮤니티를 개설, 비대면 강좌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해나갔다. 그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좌는 무사히 시작되었다.

동양화의 매력을 살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유한이 작가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그림, 민화>는 민화 그리기에 관심 있던 이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장수정 작가의 <쉽게 그리는 감성 수채화>에서는 겨울 소품인 털모자와 스웨터 등 수채물감과 색연필로 그리는 등 감성 일러스트를 배워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아름다운 여행 명소를 오일 파스텔로 표현하는 전이환 작가의 <오일 파스텔로 그려보는 여행 스케치>도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독일에서 유학한 미술사가 이현애의 <케테 콜비츠의 삶과 예술>, 『화가의 마지막 그림』의 저자 유리 작家的 <미술 속 숨겨진 이야기>, 김종현 아트 디렉터의 <미술 애호가 및 컬렉터 과정>은 미술 전반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피스트 노영아의 <악녀의 하클 이야기>, 음악 칼럼니스트 노승림의 <예술의 사생활-바흐 이야기>는 클래식에 대한 세계관을 넓혀주고자 했다. 온라인 비대면 강좌는 낯설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코멘터리

‘클래식 문화한임에도 귀에 잘 들어와요.’ ‘중간중간 들려주시는 연주가 참 좋았어요.’ ‘예쁜 그림 스킬도 알려주시고 감사했어요. 다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PPT 화면 공유할 때 더 크게 띄웠으면 잘 보였을 텐데 아쉬워요.’ ‘오전 시간 수업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강좌를 마친 수강생들의 다양한 후기는 강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익숙한 방식의 수업이 아니라 강사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지난 강좌 평가 회의 때 한 강사는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음악 감상 강좌는 수강생 개인의 인터넷 환경과 기기 조건에 따라 영상 자료의 화질과 음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강의실에서 만큼 최고 수준의 감상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 아쉽죠.” 실기 강좌에서 개인별로 피드백을 할 수 없어서, 수채화 수업에서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물감의 색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었다. 물론 분명한 장점은 있다. 먼저 장소의 제한과 이동의 불편함 없이 문화예술강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는 수강생들에게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낯선 방식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활발히 해볼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게 평가된다.

이제 4월 말부터 아카데미의 다음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강좌의 커리큘럼에서 확대, 심화 과정을 구성하고, 신규 강좌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좌를 드디어 선보이게 된다. 앞으로의 비대면 아카데미 강좌 방향성에 대해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 강좌에 대한 관심은 분명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온전히 혼자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예술이 주는 본질의 행복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고민해 발전을 도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강좌 소개와 성남시 평생학습플랫폼 배움숲(https://learning.seongnam.go.kr)을 통해 수강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글 임보연 객원기자



3

쉬어매드니스



그날의 관객과 함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코믹 추리 수사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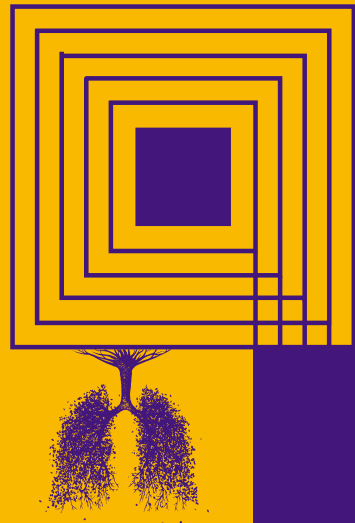
4. 2 FRI ~ 4. 4 SUN
금 4PM | 8PM
토~일 2PM | 6PM



얼음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장진의 화제작
가장 소름 끼치는 허상을 마주하라!

5. 14 FRI ~ 5. 16 SUN
금 4PM | 8PM
토~일 2PM | 6PM



링스

영국 작가 던컨 맥밀란의 대표작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90분간의
끊임없는 대화!

10. 1 FRI ~ 10. 3 SUN
금 4PM | 8PM
토~일 2PM | 6PM

늘업하늘의
무지가 거를 보면
내마음은
충혼다



제41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상처는 꿰매고 고통은 짜내야 새살이 돋는다!

12. 10 FRI ~ 12. 12 SUN
금 4PM | 8PM
토~일 2PM | 6PM



미리보기
2021 마티네 콘서트



이달의 청년작가
2021 성남청년작가전 1
<박주영: 바람 부는 날>

view

28 **이달의 청년작가**
존재의 모든 순간
2021 성남청년작가전 1
<박주영: 바람 부는 날>

32 **미리보기**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만나다
2021 마티네 콘서트



바람 부는 날, 140×140cm, 장지에 채색, 2020

Park Joo-young: A windy day

성남큐브미술관은 현실의 여러 장벽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작가들의 재능을 알리고, 관객 역시 이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미술계에 관심을 갖는 선순환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중에서도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성남청년작가전>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작가를 발굴, 반달갤러리 개인전을 통해 그들의 창작 세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올해의 첫 청년작가전에서는 존재의 의미와 순간들을 확으로 쌓아가는 박주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주제 ‘바람 부는 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제 ‘바람’을 그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작업을 시작한 때부터 ‘바람’을 담아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17년부터 주된 키워드로 삼은 ‘바람’과 그에 대한 반응을 조형적으로 풀어낸 획이 이루는 회화적 에세이가 될 수 있겠네요. 제작 시기에 따라 집중한 작업, 재료 기법과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같은 ‘바람’의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모티프로 구분한다면 확으로만 이루어진 ‘rhythm’, 구체적인 형상이나 공간이 구성된 ‘windwishee’와 ‘wind,ow’ 시리즈로 나눌 수 있어요. 리듬 시리즈가 바람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면, 후자는 바람에 따른 마음과 생각의 기록인 셈이죠. 특별히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간 생각으로만 품고 있던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었는데, 평면을 확장시키는 재료적 고민을 담은 신작 중 <pray>는 반달갤러리의 공간적 특성으로 연출이 가능했던 터라 기존 작업들과 어떤 어울림으로 느껴질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모든 전시 기회가 감사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내온 성남이라는 지역의 청년작가로서 성남큐브미술관 개인전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작가님의 홈페이지에 적힌 ‘바람의 획이 좋은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쌓아간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람wind, wish의 중의적 의미를 통한 삶의 고찰을 표현하신 ‘windwishee’,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build days’, 바람의

흔적을 형상화한 ‘wind, ow’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주제와 작업을 통해 표현하시고픈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요?

시간도, 바람도 체계는 결국 존재적 의미를 새기는 표상이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세계관과, 믿고 지키는 가치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나름대로의 치열함이 작업에 비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작업에는 결국 제 자신이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실되게 작업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전 작품을 보면 그때의 나와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되살아나는 당시의 상황과 감정이 지금의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다독이기도 하고요. 제 작품 앞의 누군가에게도 비슷한 여운이 남는다면 좋겠습니다.

작품 전반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붓의 흔적이 돋보입니다. 또 2013~16년경 ‘build days’ 시기에서는 원색의 색감이, 최근 몇 년의 ‘rhythm’ ‘wind,ow’ ‘windwishee’에서는 깊고 어두운 푸른 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작가님이 지향하시는 특정한 색채감이나 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성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배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색채감, 빛깔, 톤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성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재료 자체의 색감과 질감, 성질을 존중하며 사용하는 편이죠. 색의 유무, 다양한 색의 조화를 통해 주제를 은유하거나 색 자체에 의미를 담기도 해요. 특히 푸른 톤은 차갑고도 뜨거우면서도 뉘앙스의 폭이 넓게 느껴지는 색감이라 최근에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색(藍色, 인디고블루)



end of time, 비단에 혼합재료, 89.4×130.3cm, 2020

이 지닌 질고 어둡지만 무겁지 않은, 맑은 깊이감이 좋아요. 특정한 색깔을 지향하기보다는 각 작품에 필요한 색의 적절한 활용이 늘 고민입니다.

작업 과정이나 즐겨 사용하시는 재료도 궁금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매 순간이 새겨질 때, 평범한 풍경들이 낯설어지고 특별해지곤 합니다. 그때의 장면, 생각, 느낌, 감정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해요. 장면이나 생각의 경우, 큰 구성 이후 필요한 자료나 드로잉이 더해지곤 하고요, 느낌이나 감정은 색감과 분위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재료 사용은 딱히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용도에 맞는 것으로 종종 혼용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익숙한 재료에 자주 손이 가고 그 재료만이 주는 느낌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 재학 중에 회화 유물 모사본 제작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실제 유물을 직접 대하며 전통 재료 기법과 원리에 대해 보다 깊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경험으로 작업에 사용하는 재료도 더 풍성해지고, 전통 재료를 현대적 미감과 개인적 스타일에 적절하게 응용해야겠다는 소박한 책임감도 품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같은 검은 안료라 해도 재료마다 다른 질감, 다른 빛깔의 색이라는 접근으로 각각의 물성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바탕재인 비단의 경우, 반투명한 속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을 대체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의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또 작업 외에 영감을 얻는 취미나 활동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작업 특성상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지요. 작업할 힘이 안 나더라도, 잠시 앉아만 있더라도 일단 작업실에 가는 게 최선인 듯해요. 결국 내가 홀로 다시 마주해야 하는 영역임을 인정하다 보면 - 환기도 하고, 청소를 하게 되고, 정리해야 하는 게 보이고, 필요한 것도 떠오르고 - 어느새 다시 팬츠아저서 작업을 하게 되죠. 비슷한 맥락으로 혼자 있을 때 너무 고요하면 답답하기도 해서 음악을 늘 켜두는 편인데, 최근에는 라디오를 들어요. 작업실에서 잡히는 신호

가 클래식 채널뿐이라 꾸준히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관심도 갖게 되더라고요. 음악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들으니 작업에도 분명 영향을 끼치는데, 그 장르의 폭이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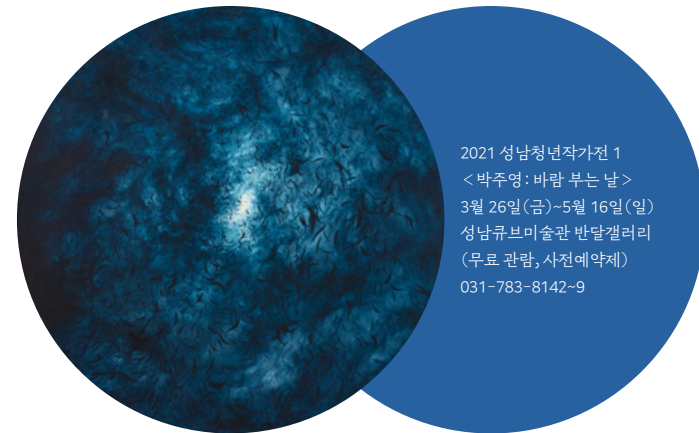
최근 관심 갖고 계신 소재나 구상 중이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획 위주의 'rhythm' 시리즈는 감정이나 느낌이 주된 작업이라, 노랫말 없는 연주곡에 비유하곤 해요. 기회가 된다면 동일한 정서의 음악을 기반으로 공간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wind,ow' 작업은 현재까지는 건물 밖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서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나가려고 해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건 이번 전시가 마지막일 것 같지만, 그래도 '바람'에 꾸준히 반응하게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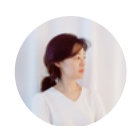
전시를 찾아주실 관객들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특히나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방법과 속도로 견디며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난히도 혼란스러웠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하루씩 어떻게든 살아낸 어제를 통해 오늘을 새기는 전시가 되면 좋겠어요. 흩어질 것은 흩날리고 남아야 할 것이 남은 '바람 부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2021 성남청년작가전 1
<박주영: 바람 부는 날>
3월 26일(금)~5월 16일(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무료 관람, 사전예약제)
031-783-8142-9



박주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 전공 학사²⁰¹¹, 동 대학원 동양화 전공 석사 졸업²⁰¹⁵ 개인전 <wind,ow> (CICA 미술관, 김포)²⁰¹⁹, <바람결> (갤러리 도스 신관, 서울)²⁰¹⁸, <바람의 바람> (527창작공간갤러리, 가평)²⁰¹⁷ 단체전 <New Thinking, New Art 2020 감각과 시선> (리서울갤러리, 서울)²⁰²⁰, 아시아프 애프터 우수 작가 20인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서정아트센터 공모 당선 작가 전시 (서정아트센터, 서울)²⁰²⁰ 지원 및 수상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작가 선정²⁰²⁰, 아시아프 애프터 우수 작가 20인전²⁰¹⁹, 서정아트센터 작가 공모 우수상²⁰¹⁹, 레지던시 가평 527창작공간 입주 작가²⁰¹⁷⁻¹⁸



바람부는 날

2021.3.26(금) - 5.16(일)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박주영, on the way home, 2019, 117 x 91 cm, 강지메 혼합재료 (details)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만나다

2021 마티네 콘서트

Matinée Concert 2021



지난 16년간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는 국내 오케스트라 중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연주를 비롯해 브람스와 슈만의 교향곡과 바그너,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윤이상 등을 소개해왔다. 친근한 형식 속에서도 높은 완성도와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여온 마티네 콘서트가 올해엔 프랑스 음악으로 찾아온다.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와 민족성처럼 클래식 음악에서도 다른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바흐, 베토벤, 브람스로 대표되는 독일 음악이 이성적이고 중후하며 치열하다면 프랑스 음악은 크게 보아 감각적이고 가벼우며 뉘앙스에 충실하다. 처음 듣기엔 클라이맥스의 강렬함도 덜하고 멜로디나 화성, 구조가 쉽게 잡히지 않아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난을 극복하고 환희로 나아가는 피날레를 듣는 것만이 음악을 듣는 목적은 아니다. 우아함의 극치인 프렌치 바로크부터, 독일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낸 19세기의 작곡가들을 지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포레와 20세기 현대음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드뷔시와 라벨까지, 프랑스 음악도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올해 마티네 콘서트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열 차례의 공연을 통해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모아 소개한다.

3월 첫 무대는 오페라 <카르멘>의 작곡가 조르주 비제로 시작했다. '투우사의 노래'와 '하바네라' 등, <카르멘>은 애호가도 아니더라도 입으로 흥얼거릴 만한 노래들로 가득하다. 이 곡들을 관현악 모음곡으로 재배열한 것이 <카르멘> 모음곡 1번과 2번이다. 이런 오페라를 작곡한 비제의 초기작은 어땠을까. 17세에 작곡한 교향곡 C장조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탄탄한 구조 속에 빛을 발하는 낭만주의적인 교향곡으로 베토벤이나 멘델스존의 향취가 느껴진다. 토스카니니 콩쿠르 1위 없는 2위에 오른 젊은 지휘자 차웅과 성남시향이 무대를 꾸몄다.

프랑스 바로크의 매혹

4월엔 바로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탈리아 출신의 장바티스트 륄리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왕과 춤을 추고 그 춤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며 프랑스 음악계를 좌지우지했는데, 대표작인 <서민 귀족>과 <프시케>의 관현악곡을 들어보자. 륄리의 위세에 놀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작곡가 샤르팡티에의 아리아와 당대

© 최재원



1. 진행을 맡은 배우 김석훈
2. 지난 3월 18일 마티네 콘서트 현장



<2021 마티네 콘서트>
3월 18일-12월 16일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031-783-8000

© 최재우

성악곡의 귀재였던 미셸 랑베르의 노래는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극한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프랑스 바로크 기악곡의 정점인 라모의 관현악곡도 들을 기회다. 한국에서 고음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카메라타 안티파 서울의 출연도 반갑다.

5월에는 프랑스의 베토벤, 베를리오즈를 만나보자. 베를리오즈는 우리가 흔히 프랑스 음악 하면 떠올리는 특징, 곧 우아함이나 풍부한 뉘앙스의 음악과는 거리가 멀다. 베토벤의 정신은 닮았으되 음악은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대표작 <환상 교향곡>은 표제 음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걸작이며, <로마의 사육제> 서곡도 교향악단의 단골 레퍼토리다. 부산시향의 상임지휘자 최수열이 과천시향과 젊은 예술가의 환상을 그려낸다. 6월의 작곡가 생상스는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신동 출신으로, 그 음악적 뿌리는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숨 막히는 피아노 독주로 시작하며, 첫 번째 주제는 제자인 포레의 선율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빠르고-느리고-빠른 3악장 협주곡 형식에서 탈피한 재미

있는 곡이다. 게자 안다 콩쿠르 2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한다. 함께 연주하는 곡들은 앞서 말한 대로 생상스와 인연이 깊은 모차르트이다. 교향곡 31번 '파리'는 스물두 살의 모차르트가 수없이 감행한 취업을 위한 유럽 여행 중 파리에서 성공을 거두게 만든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대규모에 속하며 초연 당시엔 1악장 중간에 박수가 쏟아졌다는 에피소드가 남아 있다.

인상주의 음악의 걸작을 만나다

가장 프랑스적인 악기란 무엇일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고개를 갇웃거리다 플루트 하면 수긍할지도 모르겠다. 프랑스에서는 드비엔 이래 많은 플루트 명인들이 배출되었고 작곡가들은 플루트를 위한 곡들을 써냈다. '공기 반, 소리 반'의 이 악기가 가장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역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를 위한 전주곡>일 것이다. 이 곡의 플루트 첫 솔로는 클래식 음악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다.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은 최고의 난이도를 요구하며 다양한 음악적 스타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



피아니스트 박종해



플루티스트 조성현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일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약하는 조성현이 협연한다. 드뷔시의 <바다>는 '감각으로 빚어낸 번덕스러운 환상'이라는 본인의 말이 어울리는 이른바 '인상주의 음악'의 걸작이다. 서울시향의 팀파니스트로 사랑받았던 젊은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무대다.

8월에는 현악 앙상블과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드뷔시가 이탈리아 베르가모를 여행하고 와서 작곡한 피아노곡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가장 유명한 '달빛'은 현악 앙상블로도 자주 연주한다. 생상스가 스페인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소 사라사테를 위해 작곡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화려하고 매력 넘치는 음악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레스피기는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했지만 16~17세기의 류트 음악들을 바탕으로 세 편의 <옛 춤곡과 아리아> 모음곡을 썼고 그 중 3번은 현악 앙상블을 위한 음악이다. 차이콥스키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남긴 스케치로 현악 6중주곡 <피렌체의 추억>을 남겼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제2바이올린 악장을 맡고 있는 이지혜가 이끄는 발트 앙상블이 순도 높은 음악을 들려준다.

프랑스 성악의 정수

9월은 소프라노를 위한 프랑스 노래들을 듣는 순서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작곡가 귀스타브 샤르팡티에의 오페라 <루이즈>는 봉제사 루이즈와 화가 쥘리앙의 사랑 이야기이다. 비제의 <카르멘> 3막에서 미카엘라가 부르는 노래는 두려움을 잊고 옛 애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폴랑크의 <사랑의 길>과 드뷔시의 <별이 빛나는 밤>은 정제된 아름다움을 뽐낸다. 한편, 구노의 교향곡 1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 오페라 <파우스트>와 아베마리아의 작곡가는 멘델스존의 권유로 교향곡에도 손을 댔다. 멘델스존의 교향곡처럼 밝고 하이든처럼 경쾌하다. 데이비드 이가 지휘하는 성남시향과 소

프라노 김신혜가 함께한다.

10월엔 이웃 나라 벨기에의 음악가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해 프랑스 음악처럼 인식되는 비외탕과 프랑크를 만난다. 이른바 프랑스-벨기에 바이올린 악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비외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은 우아하고 아름다워 가장 인기가 높다. 프랑크의 교향곡은 베토벤, 리스트, 바그너의 음악적 영향을 받았으나 3악장 형식에 악장 간의 유기성이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진이 지휘하는 과천시향과 최근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바이올린 영재 고소현이 협연한다. 11월에는 가브리엘 포레가 작곡한 성악곡들의 정수를 듣는다. 그의 레퀴엠은 모차르트, 베르디, 베를리오즈 레퀴엠의 격정적인 감정과는 달리 차분하고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이름 높다. 전반부에 선보이는 성악곡들은 파반처럼 유명한 음악이건, 처음 듣는 제목의 노래이건 모두 굳터더기 없이 단순하고 지극히 정교하며, 부르고뉴의 와인처럼 투명하고 하늘거린다. 십여 년간 실력을 닦아온 합창단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음악회를 이끈다.

지휘자 홍석원과 경기필하모닉이 연주하는 12월의 마지막 음악회는 드뷔시와 함께 현대 프랑스 음악의 최고봉인 라벨에게 바쳐진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은 포레에 대한 존경의 뜻이 드러나는 차분한 작품인 반면, 피아노 협주곡은 현란한 리듬과 오케스트레이션, 재즈적인 감수성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20세기 피아노 협주곡의 절정이다. '스위스 시계 장인의 음악'이라고 불렸던 그의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무소르스키의 피아노 음악을 관현악 애호가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놓았다. <전람회의 그림>의 장대한 피날레가 2021년 마티네 콘서트를 마감한다.

글.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런던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고,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주형가리 한국문화원에서 공연 기획과 홍보 업무를 진행했다.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재직 중이다.

LA MUSIQUE DE FRANCE MATINÉE



4.15 베르사유, 환상의 섬
카메라타 안티라 서울, 카운터테너 정민호

랑베르 - 그대의 경멸이 천 번의 한숨을
샤르팡티에 -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 홀로 숲으로 들어왔네
필리 - 프시케 서곡
필리 - <서민귀족> 중 터키 의식 행진곡
필리 - <아르미드> 중 파사카유
라모 -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 모음곡

5.20 베를리오즈의 자화상
과천시립교향악단, 지휘 최수열



베를리오즈 - 로마의 사육제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2021년 3~12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미술 속 심리를 만나다
모두의 첫사랑, 빈센트 반 고흐



영화 속 클래식
<인터처블: 1%의 우정>과
베버의 <마탄의 사수>



문학, 문화
직접 만드는 오디오북



트렌드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디자인을 말하다
빛의 양과 방향을 통제하는 조명 기구들

ART CURATOR

38 미술 속 심리를 만나다
모두의 첫사랑, 빈센트 반 고흐

44 디자인을 말하다
빛의 양과 방향을 통제하는 조명 기구들

46 영화 속 클래식
<인터처블: 1%의 우정>과
베버의 <마탄의 사수>

48 문학, 문화
직접 만드는 오디오북

50 트렌드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52 도시와 예술
베니스, 피노 컬렉션과 주데카 미술 지구



도시와 예술
베니스, 피노 컬렉션과 주데카 미술 지구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잘되기 마련이다

모두의 첫사랑,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 <꽃 피는 아몬드 나무 Almond Blossom>
1890, 유화, 반 고흐 뮤지엄

1888년 봄,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지체 없이 물감을 보내다오. 봄은 모든 사람을 격려하기에는 최고의 계절인데 과수원에 꽃 피는 시간은 너무나 짧지 않니.”

때늦은 폭설로 예년보다 봄의 행차가 조금 더디진 했지만, 오후의 산책길에선 숲이 몸을 풀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겨울 정취를 떨치지 못한 앙상한 숲 속에서 키 작은 나무는 은은한 향기로 개화를 알러왔다. 향기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다소곳한 나무에 살구꽃을 닮은 하얀꽃이 만발했다.

아, 반 고흐가 그렸던 꽃 피는 아몬드 나무와 꼭 닮았다. 말라 있던 가지 끝에 물기가 감돌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꽃망울을 틔우는 생명의 순환은 기적이다. 반 고흐는 파란 하늘로 솟구치는 올리브 가지에 피어나는 생명의 기적을 붓으로 기록했다. 기적이 피어난 가지 위로 자신의 이름을 이어받은 어린 생명,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마음에 꽃가지의 예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지만... 어렵었다.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어느 누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겠는가마는 자연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강도를 그림으로 증명한 데 있어서는 반 고흐를 능가할 이가 없었다. 고흐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과수원의 꽃나무를 그리고 또 그렸다. 세상에 거부당하고 상처받은 그의 영혼은 봄이면 어김없이 새 생명을 피워내는 자연의 순환에서 사랑의 확신을 얻었고, 아들의 태양이 빛어내는 색채와 풍경에서 예술의 답을 찾았다. 고흐는 자연이라는 해독제와 그림이라는 치료제로 고독과 불안의 바다를 헤쳐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했다. 화가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처방전을 쓸 줄 알았던 현명한 치료자였다.

다만 그는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림에 관한 고흐는 우리 모두의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내겐 그랬다. 이유는 모른다. 대개의 첫사랑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듯이...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뿐이겠는가.

사랑에는 진실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잘되게 마련이라고 반 고흐는 믿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작업보다 더 견실한 일은 세상에 없다고 고백했다. 견실함이란 거짓 없는 노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 고흐에게 예술은 사랑하는 대상을 견실한 노동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었다. 그는 대자연의 풍경에 무한한 사랑을 품었고, 사랑의 대상을 눈으로 정확하게 관찰하고 손으로 한 땀 한 땀 캔버스에 옮겨 담았다.

살아가는 내내 노력과 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니 자연에 대한 사랑을 정직한 노동으로 आरो새긴 그의 그림이 잘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다만 그는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을 뿐이다. 색채주의의 계보를 잇는다고 자처하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반 고흐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는다.

아름에서의 시간

1853년에 태어난 반 고흐는 1880년 스물일곱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

다. 세상에 알려진 대부분의 그림은 마지막 2년 1888~89년에 그렸다. 말 그대로 영혼을 불살라 불꽃같은 그림들을 남긴 그는 37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떠났다. 초기의 대표작들은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색채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색채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영혼의 울림에 매료되었던 반 고흐는 풍부한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1886년 네덜란드를 떠나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서의 짧았던 체류 기간에 인상주의 화가들인 드가, 모네, 쉬라 등의 영향을 받으며 부드러운 색채를 풍부하게 사용한 화사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소실점 구도를 포기하고 색채로 공간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유럽에 도입된 일본 목판화는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장면들을 담고 있었다. 우키요에는 그림자와 명암이 부재하고 소실점과 입체감을 무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회화였는데, 파리의 화가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회화적 공간을 발견했다. 그 단순함과 경쾌함에 반한 고흐가 우키요에를 열렬히 수집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파리는 이미 다양한 유파들의 각종 회화적 실험으로 포화 상태에 있었고, 고흐는 그런 도시적 분위기와 경쟁 속에서 편히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시골의 자연스러운 공기를 호흡하고 싶었던 그는 1888년 남프랑스 아를로 남하했다. 바다보다 더 깊은 푸른 빛을 지닌 아를의 밤하늘 아래서, 황금빛 물결치는 밀밭 앞에서 그는 완벽한 이상을 발견했다. 선명한 색채를 품은 햇살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의 열정을 완전 연소시키기에 충분했다. 1888년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는 그가 발견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색깔은 미묘해, 잎이 타들어가고 먼지가 끼었을 때에도 풍경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 그

때에는 또 다양한 색조의 황금빛이 깔리기 때문이지. 녹색을 띤 황금빛, 노란색을 띤 황금빛, 분홍색을 띤 황금빛... 그리고 이 황금빛은 파란색과 결합하는데 이 파란색은 또 물의 질은 진보라색부터 물망초의 파란 코발트색, 특별히 맑고 밝은 파란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채로워, 밤은 낮보다 색깔이 훨씬 풍부해.”

고흐의 열정과 좌절을 고스란히 응축한 블루와 옐로의 보색 대비를 이룬 화면은 눈이 시리고, 입체감을 자아내는 강렬한 임파스토impasto는 어서 손을 뻗어 나를 만져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그의 열정을 담은 공간은 노란색으로 채색했고, 생레미의 밤하늘을 물들인 코발트블루에는 종교적 신앙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담았다.

밤 실내의 카페는 사람들의 두런거리고 붉은 조명으로 기억된다. 색채로 각인된 고흐의 공간에는 그의 열망과 좌절이 아로새겨져 있다. 시선을 하나의 소실점에 고정했던 전통적인 선원근법을 포기한 고흐는 강렬한 색상으로 공간감을 연출해 새로운 회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신만의 회화적 문법을 창조했다.

정확하게 본다는 일

그루터기와 눈높이를 맞춘 반 고흐는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초록색으로 먼 곳과 가까운 곳, 환한 공간과 어두운 공간을 연출했다. 열 가지도 넘는 색을 품은 소나무 껍질은 추상적 패턴으로 형상화된다. 그루터기 아래서 자라나는 풀숲과 잔잔한 민들레를 남김없이 바라보고 정확하게 캔버스에 옮겨 주겠다는 반 고흐의 시선은 집념에 가깝다. 물감을 붓으로 떠서 풀잎들과 꽃송이 위에 얹고 꼭꼭 다져둔 고흐의 화면은 평면이 아니라 무수한 굴곡을 지닌 입체적 화면이다. 그루터기를 감싸는 풀밭은 따뜻한 에메랄드그린으로 빛나고 잔잔히 흔들리는

1 빈센트 반 고흐, <세인트폴 병원 정원의 소나무와 민들레 Pine Tree and Dandelions in the Garden of Saint Paul Hospital> 1890, 유화, 크뤼러 뮐러 미술관
2 빈센트 반 고흐, <분홍 과수원 The Pink Orchard> 1888, 유화, 반 고흐 뮤지엄



풀잎의 리듬이 선명하다. 반 고흐는 한겨울의 험벗은 나뭇가지를 날날이 살펴보고, 그루터기 아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며 피어나는 들꽃을, 밤하늘을 수놓은 대기의 소용돌이를, 불빛이 투영된 강물의 흔들림을 온 힘을 다해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발견하고 그의 손이 우리 곁에 데려다놓은 자연의 풍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혹적이다. 반 고흐가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독보적이고 견고한 자기 예술을 확립한 것은 철저한 고독의 힘 덕분이었을 터다. 그토록 강렬한 고독이 그를 휘몰아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반 고흐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었겠는가. 처절한 고독의 강을 건너가는 그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은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데 있었다. 예술을 향한 열정은 격랑의 물살 위에 표류하는 그의 정신을 고정해준 닻과도 같았다. 그에게 휘몰아친 창작의 열기는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강렬하고도 깊은 불안의 크기와 비례했다. 2년간 200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으니 3~4일에 한 작품을 그린 셈이다. 아를에서 둘째 해를 맞았을 무렵 정신적인 파국이 찾아왔다. 그의 생의 마지막 해를 물들인 한없이 깊고 짙은 푸른색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젖어든다. 그는 퇴원 후 가족들 가까이 머물고자 북프랑스로 옮겨왔고, 여느 때와 같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성실했고, 정직했고, 천재적 재능까지 겸비했던 고흐는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아쉬움의 크기만큼 그를 향한 세상의 사랑은 커진다.

자연의 풍경을 화가 특유의 색채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반 고흐를 계승하는 현대의 노익장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1937~는 반 고흐의 자연 사랑을 현재에 되살린다. 201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2021



1



2

- 1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1888, 유화, 크렐러 윌러 미술관
- 2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1889, 유화, 뉴욕 현대 미술관
- 3 <Hockney-Van Gogh: The Joy of Nature>. 반 고흐 뮤지엄의 동명의 전시와 함께 출간되었다



3

년 봄 텍사스의 휴스턴에서는 호크니-반 고흐 공동전<Hockney-Van Gogh: The Joy of Nature>이 개최되고 있다. 자연의 기쁨 Joy of Nature을 주제로, 반 고흐가 네덜란드의 우울한 하늘 밑에서 벗어나 남프랑스의 작열하는 태양과 햇살을 발견한 시절에 그린 11점의 작품이 호크니의 화려한 색채를 입은 숲의 정경과 나란히 공개되고 있다. 청년 시절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양한 회화적 실험을 감행했던 호크니는 노년에 접어들어 고향인 영국 북부 요크셔로 회귀해 특유의 고채도의 강렬한 색채로 숲의 풍경을 제작했다.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매순간 모습을 바꾸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호크니는 전통적인 매체와 최신 매체를 사용해 그리고 또 그린다. 아홉 대의 카메라를 장착해 오솔길의 사계를 기록하고 목탄으로, 수채로, 유화, 아이패드로 그리고 또 그린다.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재현

하는 작업이야말로 회화의 근본이고 두 화가는 그 누구보다도 근본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반 고흐와 호크니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설명이 필요치 않은 진실한 그림들이다. 자연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한 땀 한 땀 견실한 노동으로 담아낸 진실함 말이다. 반 고흐는, 그리고 호크니는 우리에게 말한다. 아름다움은 도처에 존재한다. 섬세한 감각과 집중력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연보다 더 큰 치유력을 가진 것은 없다. 호크니의 자연을 담은 그림은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www.hockney.com/home

글 윤현희 심리학 박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아동임상심리(학교심리학)를 전공했고,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미국의 개인주의적 문화가 청소년의 공감 능력 발달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휴스턴 론스타 칼리지 겸임교수이며, 저서로는 『미술관에 간 심리학』이 있다.

밤의 세계를 열다

빛의 양과 방향을 통제하는 조명 기구들

Lamp



1

www.anglepole.com

현대인은 엄청나게 밝은 전기 조명의 힘으로 밤조차 낮처럼 밝혀 살아가기 때문에 전기 조명이 없던 시절의 어둠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밤이 되면 깔리는 어둠을 극복할 수 없었다. 불을 이용할 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밤을 밝힐 수 있었으나 그 빛의 세기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초와 같은 조금 더 세련된 인공조명이 태어났지만, 그 빛의 강도는 현대의 전기 조명과 견주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양초는 오늘날 전구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밝기를 가졌다. 19세기까지도 양초는 대단히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으므로 돈 많은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아닌 일반인들은 밤의 어둠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았다. 태양과 달, 햇불, 양초, 그 밖에 석유, 등유, 고래기를 등을 태워 밝히는 인공조명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

면, 그 빛의 양과 방향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빛이란 그것을 밝히는 순간 사방으로 퍼진다. 태양이 뜨는 순간 온 세상이 밝아지듯이 특정한 공간, 예를 들면 거실에서 조명을 켜는 순간 그 빛은 거실의 구석구석에 가 닿는다. 빛은 특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내 책 위에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류는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언제나 빛의 절대적인 결핍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기 조명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전기 조명은 밝고 깨끗해서 좋지만, 지나치게 강렬해 불쾌감을 줄 정도였다. 이제 빛의 강도를 처음으로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초기에는 단순히 갓을 씌우는 정도였지만, 덴마크의 디자이너 폴 헤닝센은 조금 더 정교하게 빛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기존의 갓은 빛의 방향을 한곳으로 한정시키는 역할에 그쳤고 여전히 그 빛은 강렬했다. 헤닝센은 강렬한 빛을 완화하고자 '중첩된 갓'이라는 개념을 도입

- 1 조지 카워딘이 디자인한 앵글포이즈 1227 데스크 램프, 1933
- 2 폴 헤닝센이 디자인한 PH 5 펜던트, 1958



www.louisepoulsen.com

2

했다. 그가 1925년에 발표한 PH 테이블 램프는 커다란 갓 밑에 중간 크기의 갓이 있고, 그 밑에 가장 작은 갓이 연달아 있는 디자인이다. 이 중첩된 갓에 따라 빛은 여러 번 굴절되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헤닝센은 연구를 지속해 갓의 숫자와 각도를 미묘하게 조절한 PH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놓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PH 5 펜던트는 4개의 갓이 달려 있고 그중 가장 큰 갓의 지름이 50센티미터인 조명 기구다. 각각의 갓은 빛을 반사함으로써 빛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공간을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만든다. 헤닝센은 1958년에 무려 갓이 72개나 달린 아이초크를 발표하는데, 이 조명 기구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빛의 세계를 통제한 폴 헤닝센의 접근과는 달리 빛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디자인한 조명 기구가 있다. 바로 앵글포이즈 램프다. 이 램프를 디자인한 영국인은 스프링 공학자다. 폴 헤닝센이 미적인 관심으로 빛을 연구하고 PH 시리즈를 디자인했다

면, 조지 카워딘은 공학자로서 순전히 기능주의적으로 앵글포이즈를 디자인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으로 빛을 집중시키고자 이 조명을 고안한 것이다. 사람의 팔처럼 관절을 만들어 빛의 방향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카워딘은 강력한 스프링을 이용해 이런 기능을 실현시켰다. 그가 자동차의 서스펜션 장치를 개발하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이 이러한 공학적 설계를 가능케 했다. 그런 의도를 가졌으므로 미학적 꾸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스프링 장치가 노출되어 있고 전선 역시 어지럽게 조명의 줄기 밖으로 빠져 나와 있다. 앵글포이즈는 마치 공장의 설비처럼 생겼다. 실제로 이 조명은 제도실이나 각종 작업장, 외과나 치과 수술실 같은 곳의 설비로 쓰일 것을 기대하고 디자인했다. 카워딘은 1932년에 특허를 받고 193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1935년부터 오리지널 1227 모델이 생산되었는데, 이것은 가정용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노르웨이 디자이너 야콥 야콥센은

1937년에 앵글포이즈의 원리에 기초한 '룩소' 램프를 출시했다. 룩소는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고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픽사의 감독 존 래시터에게 영감을 주었다. 래시터는 이 램프를 소재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픽사 영화의 로고 인트로 영상에 룩소 캐릭터를 등장시켰다. 이 영상에서 룩소의 갓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방향을 바꾸며 빛을 비춘다. 빛의 방향을 통제하고자 한 조지 카워딘의 의도가 이 영상에서처럼 잘 표현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앵글포이즈는 결국 기능적인 접근으로 데스크 램프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후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티치오1972와 톨로메오1987가 대표적이다. 조각적 가치를 갖는 PH 램프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능적으로 변주한 앵글포이즈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사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낭만적 우화의 이면

<언터처블: 1%의 우정>과 베버의 <마탄의 사수>

클래식 음악은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우아하면서도 잔인한 명제를 파고들었던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였다. 그는 1979년 저서 『구별 짓기』(La Distinction)에서 음악이나 그림, 패션이나 영화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이는 영역도 실은 학력이나 계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얼핏 순수하게만 보이는 취향이 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는 데 특특히 도움이 된다.



Intouchables²⁰¹¹
감독 올리비에 나카슈, 에릭 톨레다노
출연 프랑스아 클뤼제, 오마르 시 외

프랑스 코미디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 2011은 바로 인종과 계층에 따른 차이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프랑스 파리의 백인 부호 필립(프랑수아 클뤼제)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사지의 감각을 잃고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됐다. 그의 저택에 상주할 간병인을 구하는 면접에 이민자 출신의 흑인 청년 드리스(오마르 시)가 응시한다. 드리스는 파리 번두리에 사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청년이다. 드리스가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는 첫 장면에서 카메라는 응시자들의 하반신을 클로즈업한다. 다른 백인 응시자들은 정장과 구두인데 비해 유독 드리스만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이다. 관객들은 응시자의 표정을 보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드리스의 처지를 짐작하게 된다. 면접을 보고 합격한 뒤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계층과 취향의 차이는 두

드러진다. 이를테면 필립에게 베를리오즈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이지만, 드리스에게는 그저 파리의 동네 지명일 뿐이다. 필립이 거액을 들여서 구입하는 현대미술의 추상화도 드리스의 눈에는 “백지에 빨간 물감 튀긴 것”이나 “종이에 코피가 튀긴 것”으로만 보인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음악이다. 필립이 드리스를 데리고 간 공연장에서는 카를 마리아 폰 베버 1786~1826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상연한다. 주인공 막스가 사격 대회를 하루 앞두고 한 발도 적중시키지 못하자 자신감을 잃고서 노래하는 1막 장면이 나온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극의 확립에 기여한 걸작이지만, 난생처음 오페라를 보는 드리스에게는 뜻도 모르는 고역일 뿐이다. 급기야 드리스는 “저 남자

왜 저러나. 어디 아픈가?” “저걸 돈 내고 보나?”라며 킁킁거리다가 주변의 눈총을 사기에 이른다. 영화에서는 짧게 언급되지만, 실은 이 오페라에도 신분의 차이라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 오페라에서 삼림 보호관의 조수인 막스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삼림 보호관의 딸 아가테와 결혼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격 대회 우승이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막스가 1막에서 부르는 아리아가 ‘숲을 지나고 들을 건너 *Durch die Wälder, durch die Auen*’다. 절망과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막스는 결국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 백발백중으로 과녁을 명중시킬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을 받는 대가로, 마지막 한 발은 악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는다. 세속적 성공과 순수한 영혼을

맞바꾸는 악마의 교환은 『파우스트』를 비롯해서 독일 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영화에서 클래식 나오는 건 이 장면만이 아니다. 필립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듣는 음악 역시 클래식 작품들이다. 하지만 드리스에게는 연주회에 필요한 격식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다. 드리스의 심정을 눈치챈 필립은 음악회가 끝난 뒤 특별히 악단에 부탁해서 친숙한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준다. 하지만 필립이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다. 같은 문화적 텍스트라고 해도 계층과 학력, 인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의 첫 곡 ‘프렐류드’는 드리스에게 커피 광고 음악이다.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봄’의 1악장 역시 드리스에

게는 파리 사회복지국 통화 연결음의 배경 음악일 뿐이다. “지금은 모든 안내원이 상담 중이며 연결 대기 시간은 2년입니다.” 프랑스 특유의 관료주의를 풍자한 드리스의 대사가 웃음을 자아낸다. 이처럼 영화는 계층적, 문화적으로 지극히 대조적인 두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화는 프랑스의 사업가 필립 포조 디 보르고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섬의 명망가 출신인 디 보르고스는 와인 사업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1993년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장애인이 됐고 3년 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하지만 영화처럼 알제리 이민자 출신의 간병인 압델 살루와의 우정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영화에서는 등장인물 모두가 해피 엔딩을 맞이하며 끝난다. 하지만 부유한 백인 고용인과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잃지 않는 흑인 피고용인 사이의 동화적 판타지라는 비판도 나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에도 여전히 영화가 흑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매서운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만약 백만장자 필립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가난한 흑인 청년 드리스와 만나서 속을 터놓고 대화할 일이 있었을까. 흑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와 계층적 차이를 잠시 잊도록 해주는 낭만적 우화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각박하고 암울한 셈이다.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페라의 <마탄의 사수>



글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바렌보임의 전기를 번역했고 『모차르트』 『바이블 클래식』 등의 저서가 있다. 유튜브 채널 ‘클래식 톡’을 통해 클래식과 대중의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진 제공 NEW

PC 화면에 뜬 베스트셀러 소설의 한 대목 위에 커서를 갖다 대자 '이 문장 추가'라는 안내가 뜬다. '내 목소리 녹음' 버튼을 클릭하고 따라 읽어본다. 화면 하단에 내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는 파형이 표시된다. 이어 '해설/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면, 나만의 오디오북이 완성된다. 최종적으로 발행 신청까지 하면 끝, 결과는 메일로 통보된다.



© shutterstock

전자책 기업 밀리의 서재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내가 만든 오디오북(내만오)'의 간단한 제작 과정이다. 내만오는 이용자가 직접 오디오북을 만들고 이것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밀리의 서재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밀리의 서재가 자체 개발한 이 녹음 프로그램을 통해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고, 이곳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현재 약 500종 가량의 책에서 가능하고 4월 중에는 1,000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독자 반응도 뜨겁다. 3월 둘째 주 기준 현재까지 약 15,000건이 다운로드됐고 이 중 310개가 공개 신청됐다. 운영사 검수를 통과해 서비스까지 이뤄진 오디오북은 현재 58권이다. 이렇게 개인이 만들고 발행한 오디오북을 누군가 3분 이상 재생하면 구독 수익이 발생한다. 한 명이 재생할 때마다 100원이 적립되고 5만 원부터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도 된다.

오픈 플랫폼 시도 '팟빵', 장벽 낮춘 '밀리의 서재'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낭독했을 뿐인데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니! 솔깃한 창조경제처럼 들린다. 낮아진 출판 장벽으로 누구나 책을 쓰고 저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뒤이어 이제는 누구나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일까?

사실 개인이 직접 오디오북을 만들어 판매하는 서비스를 밀리의 서재가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다. 오디오 콘텐츠 포털 팟빵이 이미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누구나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개설한 바 있다. 전문 제작사나 유명 작가가 연예인, 성우 등을 섭외해 만들던 기존 오디오북과 달리 팟빵 방송 제작자나 낭독에 관심 있는 일반인, 성우 지망생 등 이용자들이 작품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가격을 책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밀리의 서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자체 녹

음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작 장벽을 확 낮춘 것이 특징이다. 오디오북을 만들고 판매해보고는 싶지만 녹음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이들에게 아예 DIY 키트를 제공해준 셈이다.

틱톡, 팟캐스트... 거대 자본 없이도 OK

이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2,655억 원)에 달하고 한국은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세계 최대 오디오북 업체 중 하나인 스토리텔은 한국의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조 단위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팽창하는 시장과 높아진 수요를 타고, 단순히 소비에 머무르기보다 직접 제작에도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디오북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대중의 '참여형 콘텐츠'로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일반인의 오디오북 콘텐츠 제작은 팟캐스트, 유튜브, 틱톡 같은 SNS의 대중화에 힘입은 바도 크다. 거대한 자본 없이 개인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도 흥미롭기만 하다면 플랫폼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경험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하우스처럼 음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오디오북은 일반인들이 콘텐츠 제작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일반인 '낭독 스타' 탄생할까?

물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녹음 붐이 실제로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퀄리티의 유지가 관건이다. 상품 종수를 늘리기 위해 저퀄리티의 오디오북을 우후죽순 만들어 제공하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아마존 자회사 오더블은 자체적인 기술 원칙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통과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오디오북 유통 시장 대부분은 이 오더블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숨어 있던 고수들이 단순해진 오디오북 제작 시스템을 발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의외의 '낭독 스타'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오디오북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더빙 외화처럼 오디오 중심의 많은 시장이 팬덤의 소비로 굴러간다. 특정 아이돌이나 배우를 좋아하듯 성우의 음성과 연기를 좋아하고, 그가 녹음한 콘텐츠를 따라 소비하는 것이다. 오디오북 시장 역시 유튜브가 일반인 스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얼마든지 '낭독 스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원한다면 매니지먼트를 찾을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국내 중소형 출판사의 디지털출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뜻을 합쳐 설립한 한국출판콘텐츠(KPC)는 오디오북 제작부터 저작권 보호, 유통, 디지털 마케팅, 투명한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고 싶지만 네트워크가 없는 내레이터에게 '1인 독립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준다.

눈을 사로잡는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일반인도 얼마든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귀를 사로잡는 목소리 하나만 있다면 이제 당신도 예비 낭독 스타다.

글 한소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국문학과 영상을 전공하고 한국일보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한국 문학과 문화 전반에 대한 기사를 쓴다.

열풍 혹은 거품? '인싸'들의 SNS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의 열풍이 거세다.

영상의 위력 앞에 오디오는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듯 유사한

서비스를 역시 쏟아지고 있다.

클럽하우스가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이 궁금해진다.

우리는 기술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자고 일어나면 낯선 기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내가 모르는 혁신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신하고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하는 미래를 당연하다는 듯이 논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에 비해 '소셜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전성기가 지나버린 주제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10년 넘게 휘어잡고 있는 이 시장은 시장 판도가 바뀌는 수준의 큰 뉴스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나마 나타난 다크호스가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 정도였을까. 그마저도 영상 공유라는 포맷 자체로는 차별성이 아주 크다고 하긴 어려웠다. 이 정도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엄청난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은 보기 좋게 틀렸던 것 같다. 연초부터 느닷없이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소셜미디어의 소통 방식은 문자·사진·영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모두의 뒤통수가 얼얼해졌다.

클럽하우스에는 글도, 사진도 올라오지 않는다. MZ 세대를 겨냥한다는 틱톡식의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실시간 대화뿐이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대화창 같은 '대화방'을 만들면,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가 입장해 대화

를 나누는 것이다.

2021년에 오디오 전성기가 다시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IT 업계에선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대세고, 스마트폰마저 영상 콘텐츠 시청을 위해 화면을 키우다 못해 이리저리 접기까지 한다. 영상의 위력 앞에서 오디오는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닐까?

클럽하우스 열풍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이런 의심을 깨부수듯 클럽하우스의 글로벌 주간 실사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60만 명에서 올 1월 200만 명으로 급증했다. 클럽하우스 측이 이후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배로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이 경이로운 기록은 심지어 베타버전의 앱으로 달성한 결과이며, 그마저도 세계 스마트폰 OS(운영체제)의 양대 산맥인 구글과 애플 중 애플의 iOS에서만 구동되는 상태다. 클럽하우스 열풍이 시작된 지난 2·3월에 국내 중고 아이폰 거래가 급 활성화된 것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선 클럽하우스를 쓸 수 없기 때문이었다.

클럽하우스의 돌풍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온라인 화상 미팅에 누적된 피로감이 오히려 얼굴 노출이 없는 오디오 채널에 호응토록 했다고 분석한다. 또 누군가는 음성 대화 기록이 저장되지 않으니

휘발성이 강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것은 클럽하우스 특유의 '초청 시스템'이 이 앱을 어마어마한 '인싸(인사이드의 속칭) 앱'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재미있는 일에서 자신만 소외된다는 두려움,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클럽하우스 대화방에 들어가려면 지인의 초대가 필요하고 내 계정에는 누가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지 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나를 초대할 사람이 '인싸'일수록 나 역시 '인싸'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클럽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게 누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오프라 윈프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정계·기업계·연예계 '셀럽'들이 다. 이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권위의 증거가 된다. 이런 폐쇄성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의 '클럽하우스 초청장'이 판매되고 있다. 대화방 속 인물이 유명할수록 초청장 가격도 높아진다. 클럽하우스 문외한들에게는 황당한 세태로 보이겠지만,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대화방의 초청장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다.

다만 지금의 열풍과 별개로 '인기의 지속'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이야기다. 클럽하우스를 보고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오디오'라는 긍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을 딴 반짝 인기엔 그칠 것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는 충분치 않고 영상은 과한데, 오디오가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한다. 카메라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인맥을 쌓는 장점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클럽하우스의 인기 비결이었던 초청 시스템이 이미 새로운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청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노, 막상 대화방에 참여해도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소외감, 밤새 이어지는 토론에 대한 싫증 등이 쌓여 결국은 서비스 자체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휘발성이 강한 탓에 욕설이나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 이용자가 생겨난다는 문제도 점차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하우스 운영사가 대화 데이터를 저장해 엿듣는다는 프라이버시 논란도 서비스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깎아먹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그런 가운데 클럽하우스는 최근 사업 모델을 변경해 '오디오 버전의 유튜브'가 되려는 모양새다. 지금까지는 베타버전 서비스인 만큼 마땅한 수익 구조가 없었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이용자를 끌어들이면 조만간 입장 전후로 온라인 광고가 붙을 가능성도 크다. 고여 있던 소셜미디어판에 전혀 다른 새로움을 제시했던 클럽하우스

가 결국 전형적인 소셜미디어 사업 모델을 답습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수익을 위해 달리 할 도리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클럽하우스가 그동안 IT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오디오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개인적으로는 음성이 주는 특유의 따뜻함이 좋고, 실제 대화를 그대로 이식한 듯한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더 널리 흥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크다. 단, 이 시장에서 클럽하우스의 독주 체제가 지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클럽하우스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춘 서비스들이 후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트위터가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오디오 채팅 서비스를 선보였고, 중국 샤오미도 '미라오미'라는 유사 앱을 내놨다. 주식 투자 정보방이 생겨나며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한 '디스코드'도 비슷한 오디오 기반의 소셜미디어다. 한껏 들뜬 지금의 열풍이 어느 정도 식고 나면, 보다 성숙해진 시장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재편되어 있을지 궁금해진다.

글 오로라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외교학을 전공하고 조선일보 산업부에서 IT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 로봇 등 온갖 스마트한 것들을 다룬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재미로 산다.

베니스 미술계의 조용한 지각 변동

베니스, 피노 컬렉션과 주데카 미술 지구



관광객으로 북적대는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 자리한 주데카섬.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공장과 조선포로 가득 찼던 이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 빈민가로 전락해 관광 산업의 수혜도 누리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베니스의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베니스 최초의 상설 미술 지구가 설립됐고 2019년엔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들도 들어섰다. 주데카 운하변의 옛 세관 건물이 현대미술관으로 변신하며 베니스 미술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한 지 꼭 10년 만이었다. 주데카 운하를 사이에 두고 베니스에 현대미술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폰타 델라 도가나와 주데카 미술 지구를 소개한다.

VENICE



© shutterstock

코로나19로 이탈리아가 봉쇄됐던 지난해 3월, 베니스(베네치아) 운하에 물고기 떼가 대거 출현해 화제를 모았다. 관광객과 수상 교통량 급감으로 운하 물이 깨끗해지면서 나타난 '코로나의 역설'이었다. 연간 3천만 명이 찾는 베니스섬에 사는 주민은 불과 5만5,000명. 1980년대까지만 해도 12만 명이 살았으나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홍수 문제, 생활 불편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 섬을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다.

베니스에 입성한 '큰손' 컬렉터들

이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건 비단 관광객만이 아니었다. 현대미술과 함께 찾아온 부호 컬렉터들도 있었다. 이들은 역사성 있는 낡은 건물들을 현대미

술관으로 개조해 베니스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베니스섬에 가장 먼저 미술관을 설립한 1세대 외국인 컬렉터는 페기 구겐하임이지만 엄밀히 말해 그녀는 미술관 설립을 위해 온 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을 딴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녀가 1979년까지 살았던 18세기 팔라초 건물로, 사후에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장품도 대부분 구겐하임이 생전에 모았던 모던 아트로 한정된 것이 특징이다.

베니스에 혁신적인 현대미술관을 가장 먼저 설립한 건 프랑스인 기업가 프랑수아 피노였다. 그는 크리스티 경매사의 소유주이자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 회사를 거느린 케링 그룹(Kering Group)의 창업주다. 15세에 학교를 중퇴하

고 사업가로 대성공을 거둔 피노는 데이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 신디 셔먼 등 현대미술의 가장 핫하고 비싼 작가 작품은 거의 다 소유한 큰손 컬렉터이기도 하다. 5천여 점의 미술품을 보유한 피노는 2006년 18세기 궁전 팔라초 그라시(Palazzo Grassi)를 사들여 자신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첫 미술관을 개관한 데 이어, 2009년에는 버려진 옛 세관 건물을 개조한 두 번째 미술관 폰타 델라 도가나(Punta della Dogana)를 열어 화제가 되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리모델링 설계를 맡은 것도 주목을 받는 데 한몫했다. 2011년에는 프라다의 소유주인 미우치아 프라도도 18세기 궁전을 매입해 베니스에 프라다 재단 현대미술관을 세웠다. 리모델링 설계는 프라도의 오랜 파트너인 네덜란드의 건축 거



Felix Gonzalez-Torres, <America America>

1

©이은화

1.2 폰타 델라 도가나는 개관 이후 차별화된 전시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화제의 전시 외에도 2015년 비엔날레 시즌에 선보인 베트남 작가 담보의 <미끄러진 허> 전,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전시' 등 미니멀하고 명상적인 전시 등으로 균형 있는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주데카 운하에 면한 세관 건물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면서 폰타 델라 도가나는 피노 재단의 현대미술관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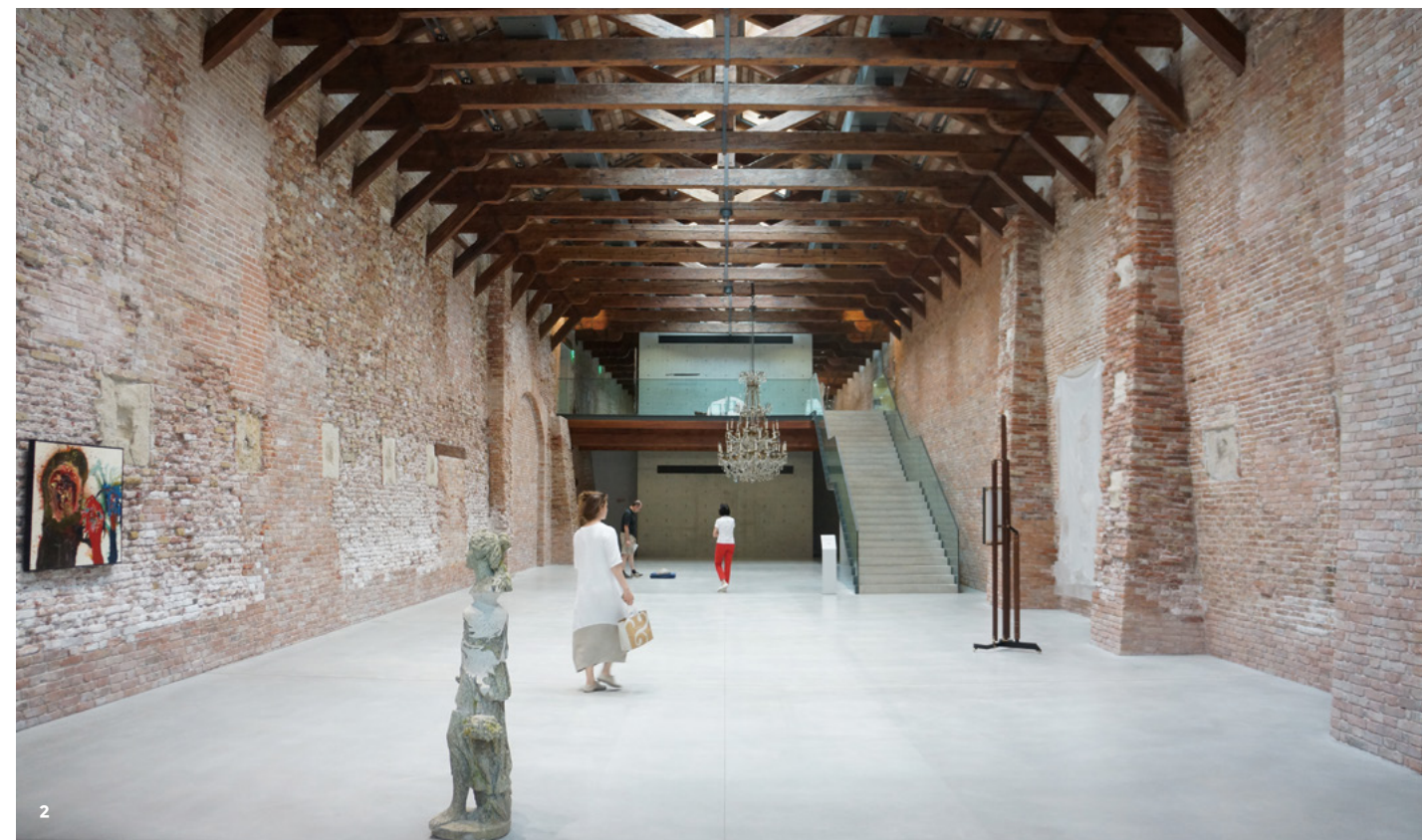
장 램 콜하스가 맡았다. 이렇게 두 명품 브랜드 오퍼와 건축 거장들이 현대미술관 건립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베니스로 집중시켰다.

17세기 세관 건물에 꽃핀 현대미술

2000년 이후 베니스섬에 새로 들어선 미술관들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폰타 델라 도가나다. 베니스 대운하Grand Canal와 주데카 운하Giudecca Canal가 만나는 삼각지대 끝에 위치한 이곳은 미술관이 들어선 세관 건물Dogana da Mar뿐 아니라 이웃한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Santa Maria della Salute과 베니스 대주교 수도원Patriarchal Seminary of Venice 건물까지 포함하는데, 모두 17세기에 지어진 역사성 있는 건물들이다. 하지만 주데카 운하에

면한 세관 건물이 미술관으로 변신하면서 폰타 델라 도가나는 피노 재단의 현대미술관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 주세페 베노니Giuseppe Benoni의 설계로 1678~82년에 지어진 세관 건물은 회랑 스타일의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 꼭대기에는 대형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그리스 신화의 거인 신인 두 명의 아틀라스가 떠받치는 황금색 지구본 위로 운명의 동상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원래 베니스시는 30년 동안 방치된 낡은 세관 건물을 아파트나 호텔로 개조할 계획이었지만 역사적인 건물의 상업 용도 전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계획이 실패하자 시는 이곳의 용도를 현대미술 센터로 변경하고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했

다. 이미 베니스에 미술관을 운영 중이던 구겐하임 재단과 팔라초 그라시가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피노의 승리로 돌아갔다. 즉 폰타 델라 도가나는 피노 회장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33년간 베니스에서 빌려 운영하는 미술관인 것이다. 2천만 유로(약 35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폰타 델라 도가나는 역사성과 장소성, 미니멀리즘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리모델링 설계를 맡은 안도 다다오는 옛 건물의 외관과 전체적인 구조는 살리면서 내부만 미술관의 기능에 맞게 개조했다. 손상되고 마모된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보강했고, 내부도 표면 마감 없이 그대로 노출시켰다. 목재로 된 박공지붕도 과거 세관 건물과 거의 동일한 재료로 대체됐다. 이렇게 해서



2



17세기의 공간에서 21세기의 미술을 만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베니스에 탄생할 수 있었다. 폰타 델라 도가나는 개관 이후 설립자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시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2015년 비엔날레 시즌에 맞춰 선보인 베트남 작가 담보의 <미끄러진 허>전은, 대규모 작품들로 분주하고 시끌벅적했던 비엔날레 전시와 달리 조용하고 명상적인 전시로 호평을 받았다. 규모와 물량 공세로 승부하는 듯한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전시와는 격을 달리하는 미니멀한 전시 미학을 새 트렌드로 제안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2017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시기에 맞춰 '미술계의 악동'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규모 개인전을 팔라초 그라시아와 동시에 열었는데, 전시 콘셉트부터 규모, 연출, 작품 등 모든 면에서 이슈가 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해 비엔날레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믿을 수 없는 보물'이란 주제로 열린 당시 전시는 피노 회장의 전폭 지원하에 무려 750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는데, 2019년에는 다시 로니 혼과 토마스 슈테 등이 포함된 개념적이고 조용한 그룹전으로 전시의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베니스에 두 개의 미술관을 거느린 피노 회장은 이제 고국인 프랑스 파리에 옛 곡물 거래소를 개조한 세 번째 미술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관광객은 모르는 새로운 명소, 주데카 미술 지구
하늘에서 본 베니스섬이 물고기 모양을 연상시킨다면, 본섬 아래 위치한 주데카섬은 마치 물고기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긴 지느러미 같다. 이런 생김새 때문인지 주데카Giudecca라는 말은 고대에 '긴 가시'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한때 팔라초로 불리는 정원 딸린 웅장한 궁전과 수도원으로 유명했던 이 섬은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조선소와 제

분소, 양조 공장이 가득한 산업 지역이 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산업 빈민촌으로 전락했고, 이후 관광 산업의 수혜도 비켜간 낙후된 섬이 되었다. 조용했던 주데카섬에 최근 들어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갤러리와 아트 스튜디오, 레스토랑과 고급 호텔들로 가득한 예술 지구가 탄생했고, 세련된 아파트와 저택이 들어선 신 주거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산마르코 광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문화적인 삶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 애호가인 가수 엘튼 존과 미우치아 프라다도 이 섬의 주민에 합류했다. 2017년에 탄생한 '주데카 미술 지구GAD, Giudecca Art District'는 베니스에 설립된 최초의 상설 미술 지구다. 이곳에는 서울의 인사동이나 뉴욕의 첼시처럼 갤러리들이 밀집해 있다. 2019년까지 11개의 베니스 갤러리들이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개관했고, 작가의 작업실과 예술에 영감을 받은 식당들이 속속 생겨나며 주목받고 있다. 외지에서 온 부호 컬렉터들이 거대 자본으로 베니스섬에 미술관 설립 붐을 주도하고 있다면, 베니스의 미술인들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조용한 주데카섬에서 문화 부흥을 일으키는 중이다. 주데카 미술 지구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건 2017년이지만 베니스의 갤러리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곳으로 본거지를 옮겨왔다. 이 섬에 가장 먼저 문을 연 건 미켈라 리초 갤러리Galleria Michela Rizzo다. 2004년 설립된 이 갤러리는 2008년 산마르코 광장 근교 16세기 팔라초 내로 옮겼다가 2013년 주데카섬의 옛 양조장 건물로 이전했다. 16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르 치텔레Le Zitelle 성당의 옛 수녀원 건물은 기획 전시 공간 '주데카 프로젝트 스페이스'로 거듭났다. 베니스란 도시의 정체성을 대변

© Shutterstock

하는 실험적인 전시가 주로 열리는데, 세계적인 작가부터 이제 막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젊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매회 새로이 선정된 외국 감독과 큐레이터들이 이끄는 국제 행사라면, 주데카 미술 지구는 2017년부터 베니스 출신의 미술감독 파올로 셀시Paolo Scelsi와 발렌티나 조이아 레비Valentina Gioia Levy가 이끌고 있다. 이들의 지휘하에 2019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 6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20개의 전시가 주데카 미술 지구 곳곳에서 열렸다. 2019년에는 기존의 11개 갤러리뿐 아니라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나이지리아 등 제 5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3개의 국가관까지 들어섰다.

주데카섬에 주목했던 현대 미술가들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퍼포먼스의 대모' 마리아 아브라모비치가 1976년 이 섬에서 첫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2013년에는 아이 웨이웨이가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와 연계해 '배열Disposition'이란 제목의 개인전을 열었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 때 무너진 학교에서 건

져낸 긴 철근을 이용한 설치미술을 통해 중국 사회를 고발한 작품을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실 120년 역사의 베니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에 최근까지도 상설 미술 지구가 없었다는 점이 좀 놀랍긴 하다. 19세기 말부터 국제적인 현대미술 전시회를 열어왔던 베니스가 21세기가 되어서야 런던이나 뉴욕처럼 갤러리 밀집 지구를 갖게 된 것이니 말이다. 로컬 미술계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전에 글로벌 미술 무대가 되어버렸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 미술인들이 주체가 된 상설 미술 지구의 설립은 환영할 일이다. 베니스에는 아카데미 아처럼 고전 미술을 보여주는 훌륭한 미술관이 있지만, 새로 들어서는 미술관은 모두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이방인 부호 컬렉터들이 세운 것이었다. 아무래도 전시에 있어서도 그들의 취향과 과시욕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베니스의 미술인들은 관광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을 선택해 조용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있다. 부자 외지인들은 언제든 시장 상황에 따라 베니스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베니스

미술인들은 어떻게든 이곳을 지켜낼 것이다.

주데카 미술 지구의 설립 목적은 영구적인 현대미술 공간에서 소수의 컬렉터 취향보다는 공공성을 띤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 체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또 관광객을 위해 어찌다 한 번 요란스럽게 열리는 대형 이벤트가 아닌, 지역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전시회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문 닫은 양조장, 공장, 수녀원 등 용도를 다해 버려진 옛 공간들이 현대미술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베니스섬은 다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을 테다. 오버투어리즘을 피해 떠나는 대신 베니스 미술인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과 실천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글 이은화 미술 평론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런던 소더비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학, 맨체스터 대학원에서 미술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표 저서로 『그랜드 아트 투어』, 『가고 싶은 유럽의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 1.4 주데카 섬에 자리한 주데카 미술 지구(GAD). 베니스에 설립된 최초의 상설 미술 지구다. 기획 전시공간 '주데카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16세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르 치델레 성당의 옛 수도원 건물을 활용했다
- 2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주데카 미술 지구에 3개의 국가관이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에스토니아 국가관
- 3 주데카 미술 지구의 풍경들. 문을 닫은 공장 건물을 갤러리로 개조했다



3



4

주데카 미술 지구의 설립 목적은 영구적인 현대미술 공간에서 공공성을 띤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 체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1

2

세계악기전시관

WORLD MUSICAL INSTRUMENT MUSEUM

음악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창
Journey to the World with Music



세계악기전시관은 지구촌 전 대륙의 다양한 전통 악기를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세계악기전시관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람안내

운영시간 연중 10:00 ~ 21:00
위 치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층
이용방법 사전예약 후 관람 가능 (개인/단체)

홈페이지 www.bbscamp.com
문의 031)783-8155

해설안내 (단체)

운영시간 화 ~ 금 10:30, 14:00 (2회)
소요시간 약 40분
대상인원 회당 최대 30명 (사전예약)

프로그램 전시관람, 영상관람 및 활동지,
악기체험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람시간 및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 속으로 1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INSIDE SEONGNAM



독립예술영화관
<담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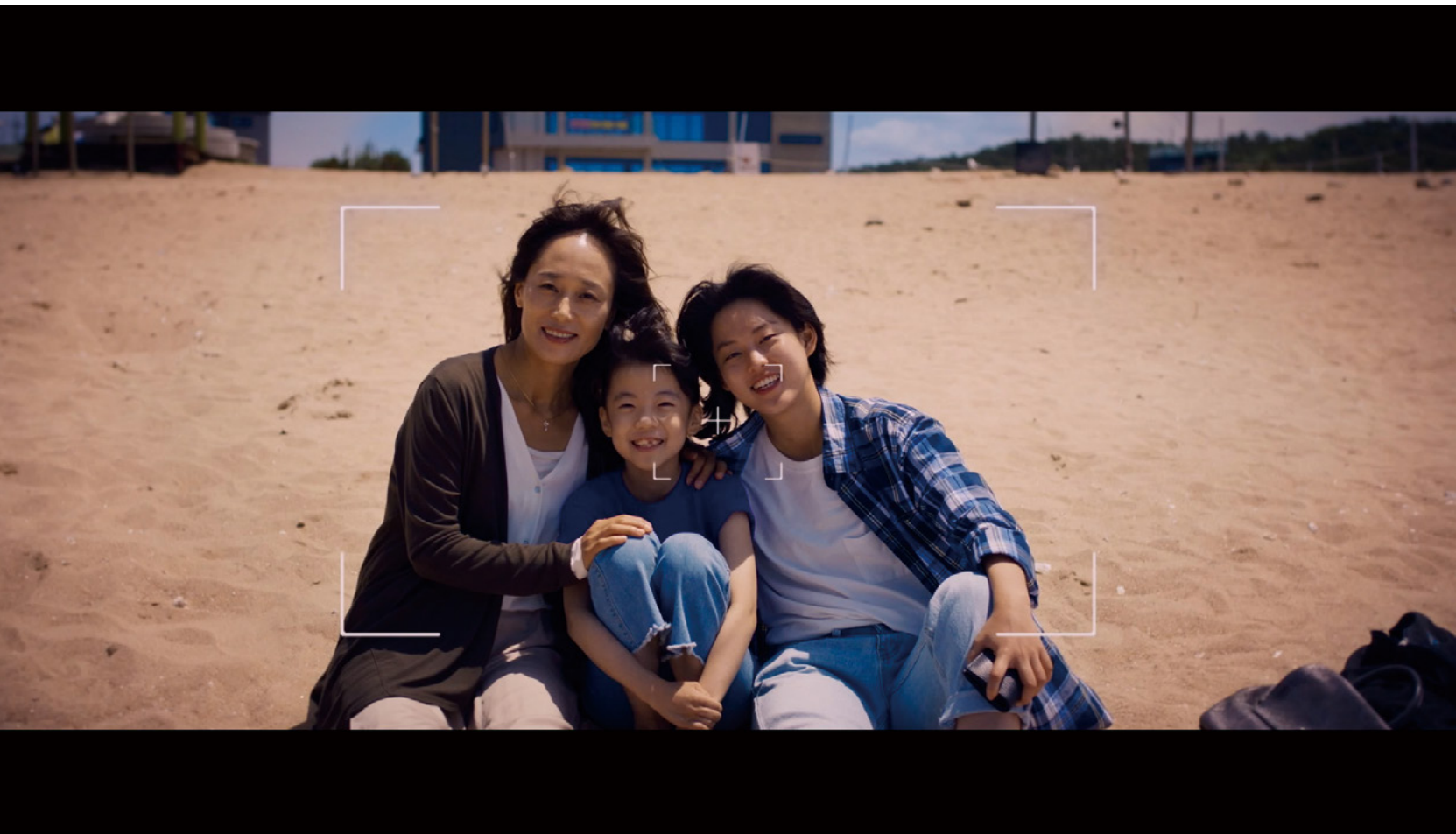
성남 속으로 2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62 독립예술영화관
영화 <담쟁이>

64 성남 속으로 1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66 성남 속으로 2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68 성남문화재단은 지금



당신의 응답을 기다려

영화 <담쟁이>

뒷모습만으로도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재이 감독의 <담쟁이>의 첫 장면.

카메라를 등지고 돌아선 아이는 저 멀리 열린 문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듯하다. 누군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더라도 하는 듯이.

Take Me Home

고사리 같은 작은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다. 액자의 앞면은 아직 볼 수 없지만, 아이에게는 귀한 게 아닐까 싶다. “수민아”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에 비로소 아이는 시선을 거두고 무표정한 얼굴을 슬며시 보인다. 수민(김보민)은 혼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수민이 들고 있던 사진은 무엇이고 어떤 사연이 있을까. <담쟁이>는 그 대답을 찾아 과거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남들에게는 사촌 언니, 친한 동생이라며 둘러대지만 실은 사랑하는 사이이자 친밀한 동거인인 은수(우미화)와 예원(이연). 두 사람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다. 교통사고로 은수가 크게 다치고 동승했던 은수의 언니 은혜(최정화)는 세상을 떠났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수민은 갑작스레 혼자 됐다. 예원은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면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에 누구보다도 은수를 사랑하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은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과 마주한다. 아프고 지친 몸, 가족을 잃은 충격, 조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제도가 보장하는 관계망 안에 안착할 수 없는 예원과의 관계까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은수는 예원을 밀어내려 하고, 예원은 어떻게든 은수를 곁에서 돌보고 함께하려 한다. 은수, 예원, 수민의 동거는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저마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던 은수, 예원, 수민은 잠시 바닷가 소풍 길에 함께 오른다. 행복한 한때를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도 본다. 짧은 여행이 그들에게 얼마간의 활력이 돼 다시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그들만의 보금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나가기도 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담쟁이>는 동성 커플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과 비난, 결혼과 입양 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은

수는 예원, 수민과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녀의 이 선택은 ‘현실이 이러니 어찌겠느냐’는 수세적 태도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높고 견고함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약하고 싶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은수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은혜의 49제를 홀로 치르는 장면의 바로 다음 장면 때문일까. 건강을 회복한 듯 보이는 은수가 예원, 수민과 나란히 서서 언니의 49제를 치르고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장면이 아주 잠깐 등장한다. 은수의 소망과 예원이 기댄 환상의 신일 텐데 이는 곧이어 닥칠 세 사람의 잠정적 이별과 극적으로 대비되며 은수의 바람이 영화 속 작은 틈새를 찾아 숨어든 것처럼 읽힌다.

<담쟁이>는 다시 수민을 비춘다. 영화 초반에 수민이 있던 곳은 임시 보호 시설인 듯하고 수민이 들고 있던 사진은 은수, 예원과 바닷가에서 찍은 바로 그 사진이다. 그리고 <담쟁이>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수민의 얼굴로 끝을 맺는다. 영화 초반 수민의 뒷모습으로 시작했기에 미처 볼 수 없던 수민의 얼굴을 이제야 제대로 본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수민의 응시를 마침내 정확하게 마주한다. 영화의 이 시작과 끝에 <담쟁이>가 전하려던 질문과 대답이 있다. 수민이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릴 만한 물건이나 사진이 아니라 은수와 예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건 꽤 상징적이다. 수민의 기다림은 혈연적 존재가 아니더라도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같이 하고 나란히 모로 누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을 청하고 소풍 길에 올라 웃음을 나눴던 은수와 예원을 향한 것이다. 친밀한 동반자이자 동행자들. 수민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는, 당신은 수민의 이 시선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담쟁이>는 성남문화재단이 2019년 제작지원한 작품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성남문화재단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이 함께한 독립영화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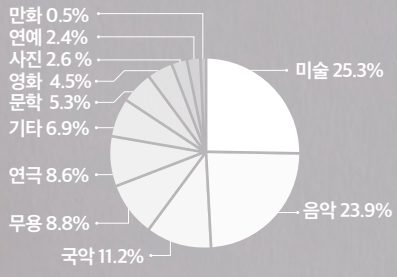


글 정지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 웹진 <REVERSE>의 필진으로 일하며 영화에 관해 말하고 쓴다.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너와 극장에서』(공저), 『아가씨 아가입』(공저 및 책임 기획), 『독립영화 나의 스타』(공저) 등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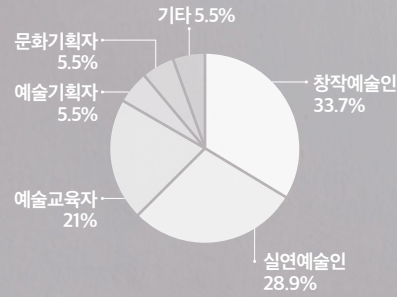
성남 예술인 연령별 분포



성남 예술인 활동 분야(장르)



성남 예술인 주요 직업 형태



지역 특성기반 예술정책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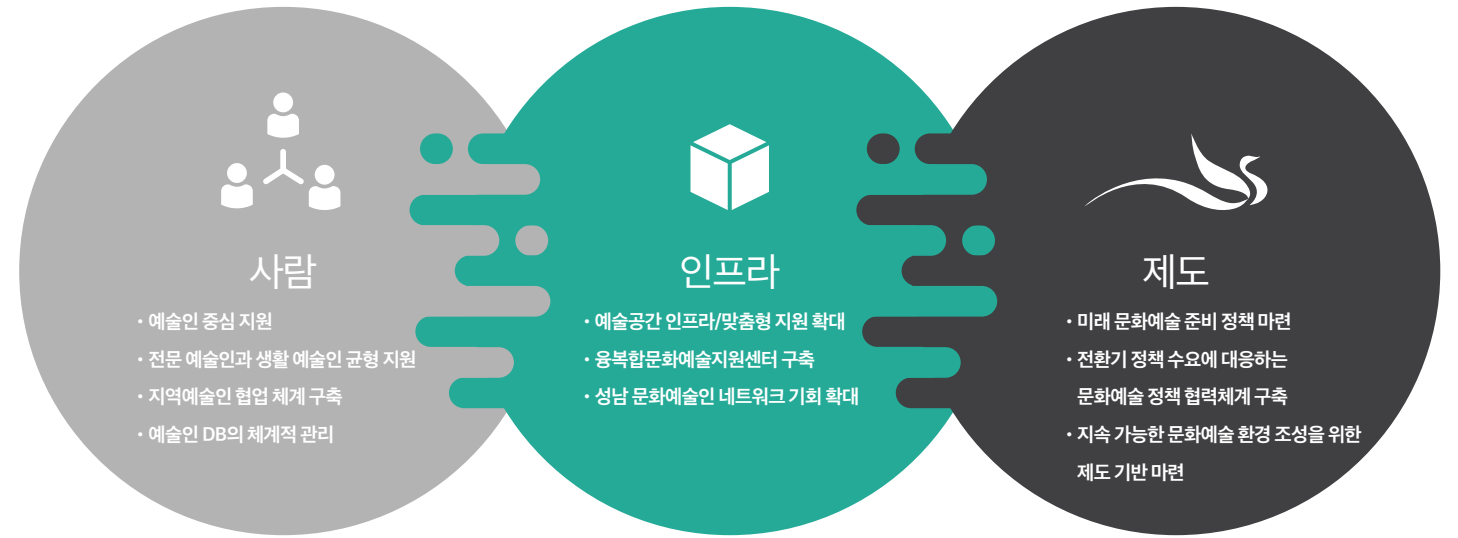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구상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성남문화재단이 차세대 성남 문화예술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진행한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완료했다.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활동 조사 분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및 비전 수립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성남 문화예술 발전정책 방향



이번 실태조사는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419명(목표 400명), 예술단체 54개(목표 50단체)를 대상으로 정량 조사 및 집단 심층 인터뷰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설문 참여 예술인의 주요 직업 형태로는 창작예술인(약 34%)과 실연예술인(약 29%)의 비율이 높았으며, 개인(41.3%)보다는 협업(47.2%)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예술활동 자체에 대한 자긍심 및 만족도는 높으나 생계 및 활동 비용 조달 등에 어려움이 컸고, 활동 예산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64%)로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예술활동 지원 사업 및 정책 관련 조사 결과 공공 문화사업 및 창작비용 지원 사업을 많이 경험하였으나, 공간지원에 대한 지원 수혜 경험이 매우 낮았으며, 성남 내 공공 예술활동 공간지원에 높은 수요를 보였다. 지원사업 확대 요구도 높았으며,

코로나 위기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문화재단은 크게 사람, 인프라, 제도 부문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예술인(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간 균형 있는 지원 정책으로 변화가 요구된다.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만의 협업 네트워크뿐 아니라, 지역 기술 전문그룹과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성남 예술인 DB의 축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적극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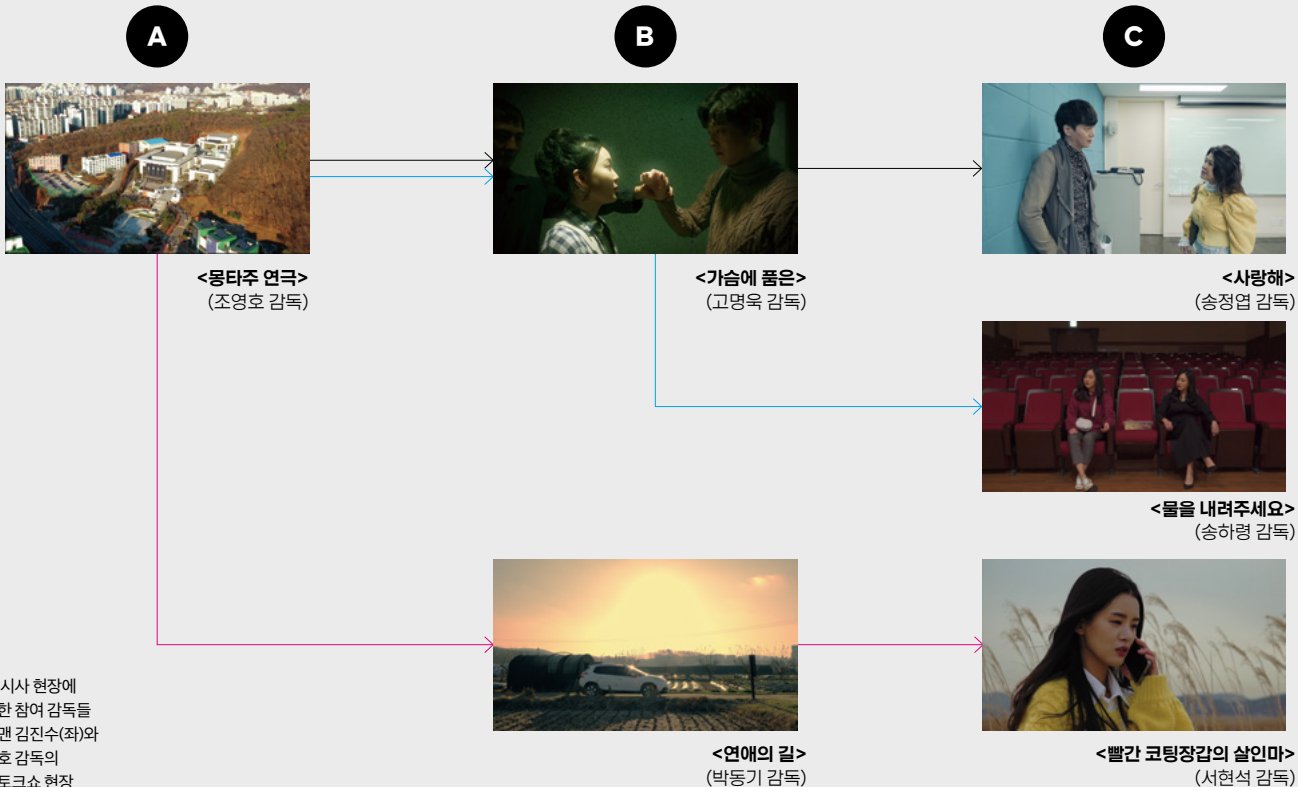
인프라 부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예술 공간 및 맞춤형 지원 필요성과 이러한 공간들의 '융복합문화예술지원센터' 성격으로의 활용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더불어 이를 통한 시민과 예술인 지역 기

업이 연결되는 새로운 기술 기반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제도적 제안으로는 미래 성남의 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문화예술 비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고유 역할 도출 등 문화예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마련이 강조되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성남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성남 문화예술 비전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글 정보라담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대리

Relay Movie Project



- 1 기술 시사 현장에 자리한 참여 감독들
- 2 개그맨 김진수(좌)와 조영호 감독의 교육토크쇼 현장

어서 와, 이런 영화는 처음이지?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빛어내는 움직임은 존재한다. 성남미디어센터가 진행한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역시 그 사례다. 러닝타임 7분 내외의 단편영화 6편. 참여 스태프와 제작비 등 모든 것을 최소화해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을 빛어내기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이다.

바야흐로 '숏폼'의 전성시대다. 짧게는 틱톡부터 회당 15분 내외의 드라마와 웹예능까지,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으며 대세가 된 숏폼 콘텐츠. 영화계와 뮤지컬까지 숏폼의 형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지금, 성남미디어센터는 조금 더 색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지난해 말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 각 7분 내외의 단편영화 6편, 관객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감독의 영화로 이어지는 인터랙티브 형식의 이색 콘텐츠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지침 속에 창작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즘, 비대면 콘텐츠 상황에 맞춘 온라인 기반 콘텐츠 제작으로 새로운 창

작의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목표다. 지난해 성남문화재단의 미디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영화감독 조영호 네오무비 대표가 총감독을 맡았고, 각 단편영화의 감독은 외부 전문가(고명욱 감독, 박동기 감독)뿐 아니라 성남미디어센터 강사(송정엽, 송하령, 서현석)가 함께 참여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술가와 예술강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교육 활동이 중단된 강사들에게는 영화 제작을 통한 창작 기회를, 배우와 영화인들에게는 새로운 콘셉트의 창작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크다. 촬영 공간은 성남아트센터 내 여러 시설 인프라를 활용했고, 영화 전문 장비가 아닌 성남미디어센터

보유 장비로 촬영하며 미디어센터 장비의 활용도와 가능성 역시 확인했다. 스태프 역시 일반적인 촬영장 대비 대폭 감축, 촬영감독과 조감독 포함 총 6명이라는 최소 스태프로 제작을 완료했고, 시민 배우, 시민 스태프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 외의 부가 콘텐츠도 풍성하다. 지난 12월 23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무관중 녹화로 진행된 교육토크쇼는 개그맨 김진수와 총감독 조영호의 진행으로 참여 감독과 스태프들이 촬영 후일담과 프로젝트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촬영과 별도로 제작된 이 콘텐츠는 이후 교육 자료는 물론 아카이브로 활용이 기대된다.

총 6편의 완전체 '릴레이 무비'는 지난 3월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기술 시사를 가졌다. 7분 내외로 압축된 스피디한 전개, 관객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감독의 영화로 전혀 다른 결말로 향한다는 점 등 형식상의 신선함과 더불어, 감독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 역시 돋보였다.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의 영화와 교육토크쇼는 이후 성남문화재단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의 가능성을 열어갈 '작지만 큰 영화', 릴레이 무비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해본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과장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 준비 착착: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진행

성남문화재단이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를 위해 <2020 성남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의 진행과 결과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전문가 및 지역 예술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난 2월 17일 진행된 제1차 라운드테이블은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 연구 방향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유상진 前 지역문화진흥원 부장, 정종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의 목표와 과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추진 체계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당일 불참한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3월 11일 온라인을 통해 부산문화재단 비전 수립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월 19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2차 라운드테이블에는 창작 분야(미술)와 실연 분야(무용, 음악, 국악)의 지역예술인과 성남문화재단 최현희 경영국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 사업 설명 및 지역예술인과 현실적인 의견을 나눴다. 라운드테이블 시작에 앞서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준 지역예술인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남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비전을 잘 수립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지역예술인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예술인·예술단체의 실질적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잘 반영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실태조사 및 두 차례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2018년 제작지원작 <니나,네나>

제2의 <별새>를 꿈꾸다: 2021 성남독립영화제작 지원 공모 성료

2016년 제작지원작 <별새> 포스터



성남문화재단이 작품성 뛰어난 독립영화와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지원하는 '2021 성남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의 공모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및 지원작 선정에 돌입했다. 재단은 지난 1월 25일~2월 19일에 공모를 진행, 장편 80편과 단편 165편 등 총 245편이 접수된 가운데 성황리에 공모를 마감했다. 지난해 접수 작품 197편 대비 약 24%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공모작 심사는 영화 분야별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와 화상(예선) 심사, 면접(최종) 심사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오는 4월 말 성남문화재단 및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다. 제작지원 작품은 장편·단편 각 2편 내외로 장편은 최대 8천만 원, 단편은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촬영 분량의 30% 이상을 성남에서 촬영해야 한다. 한편,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8년째 국내외 유명 영

화제 초청과 수상 성과를 이어가며 국내 독립영화 제작 저변 확대와 신인 감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대중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하고 2019년 런던, 시애틀, 베를린 등 국내 유수의 영화제 초청 및 수상을 기록한 화제작 <별새>(감독 김보라, 2016년 지원작)를 비롯해, 2018년 지원작인 <찬실이는 복도 많지>(감독 김초희), 최근 개봉한 2020년 지원작 <아이>(감독 김현탁)까지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독립영화 작품을 지원해왔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 작품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작품성과 흥행성을 갖춘 시나리오, 역량 있는 신인 창작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독립영화 시장의 안정적인 제작 기반을 다지고 세계 영화계에서 K-독립영화의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위대한 시민의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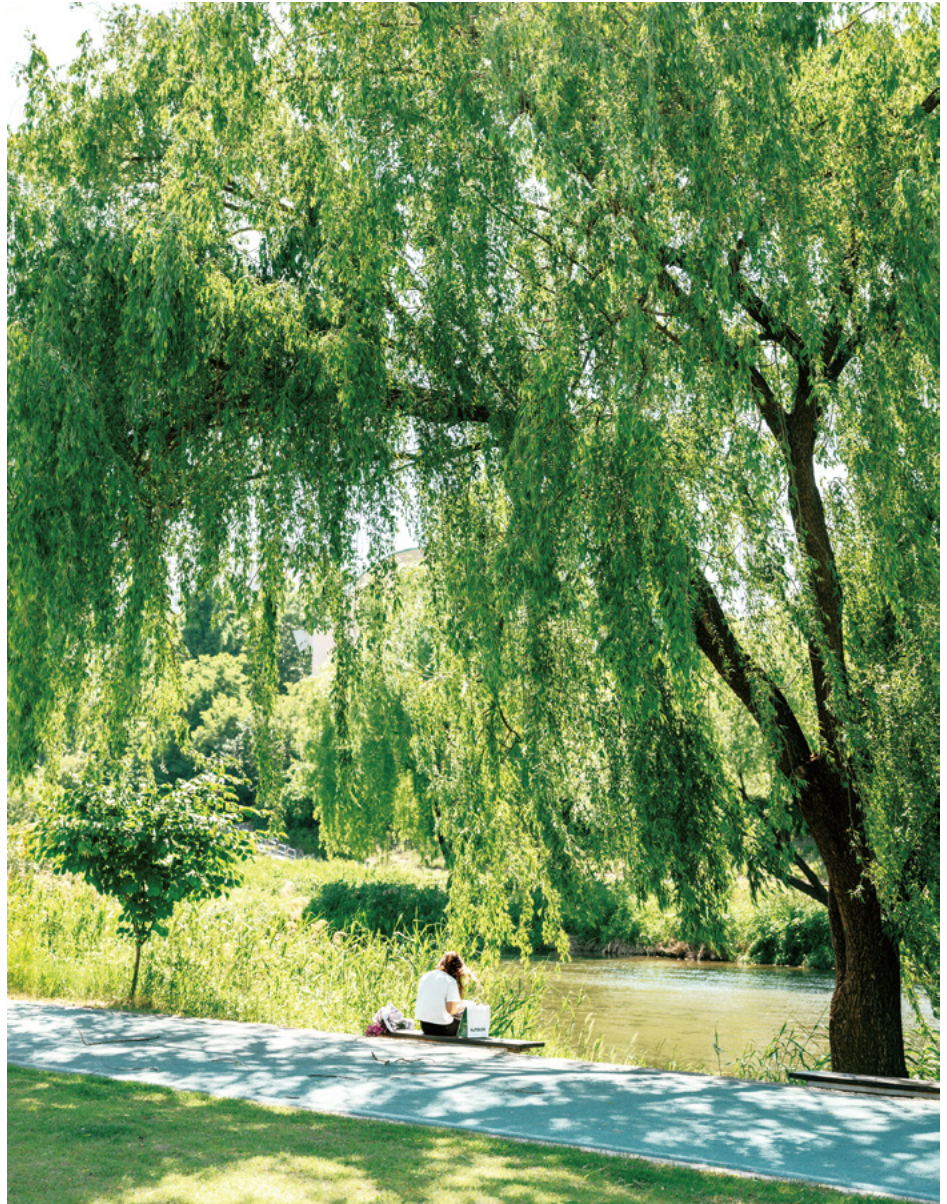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이 올해에도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웹툰으로 재조명하는 제3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3년에 걸쳐 독립운동가 100인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제작, 연재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첫해인 2019년에는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허영만, 김진, 권가야를 비롯해 45인의 작가들이 참여해 김구, 윤봉길,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 활동을 다음웹툰에 연재했다. 제2차 프로젝트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라는 주제로 안창호, 방정환, 김하락 등 33인의 독립운동가를 이현세, 이빈, 지강민 등 작가 40인의 작품으로 제작해 EBS툰으로 만날 수 있다. 올해에는 '위대한 시민의 평화'를 주제로 안중근, 유관순, 독도 등 총 34개 작품을 제작,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머털도사> <임꺽정>을 그린 한국만화의 거장

이두호 작가를 비롯해 대한민국 순정만화 대표 작가인 이은혜, <아만자>의 김보통, <코믹 메이플스토리>의 서정은 등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해마다 작품의 25~30% 이상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 데 이어, 올해는 10인 이상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2019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감사패 수여, 2020년 국가보훈처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 경기도 호국보훈사례 선정 등 바른 문화콘텐츠 제작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올해 100인의 웹툰이 완성되는 만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사라지지 않는 콘텐츠 문화 자원인 웹툰으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0 신소장품전
New Acquisitions 2020

2021.1.29(금) - 6.27(일)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상의 재발견

#분당 #탄천 #점심

이사 갈 때 유리 제품은 신문지나 뽁뽁이에 싸서 포장한다. 깨지기 쉬운 것들은 얇은 종이 한 겹이라도 덧대기 마련이다. 사람들을 만나면 올해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할 거라며 불안하단 말을 듣는다. 그런데 불안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외의 유익이 있다. 평소엔 알기 힘든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게도 뜻밖의 변화로부터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 평범함 속에서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전 일상생활을 돌아본다.

사진 속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지하보도 앞 벤치. 오가며 볼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은, 맞이하는 계절과 지나는 시간, 그 안의 사람들로 인해 다채롭게 변화한다.

글과 사진. 박신우 포토그래퍼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2017, 일현 미술관2009 양양, 토포하우스 그룹전2010 서울 외 다수의 기획전 및 개인전을 가졌다.

여행 가이드북 『로컬스캐이선즈』를 통해 동네를 재발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의 이야기
2021.12.14(목) 문화뉴스



도시의 예술
베니스, 마르셀루스, 주데카, 미술 지구

Popular



성남시 소포
문화이슈연구소 창간호

Creative

Untact Online Culture and Art Education

비대면 온라인 문화교육프로그램



이달의 장난감
2021.12.14(목) 어린이
예술을 통해 배우는 것

POST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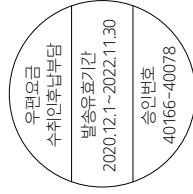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휴대폰

이메일



이달의 Art & Culture Magazine 2021.10.4~05

artv

Seongsnam Cultural Foundation
www.artv.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문화재단 홍보미디어부 <이달의> 담당자 앞

1 3 5 1 4

①— <아트뷰>를 어디에서 만나셨나요?

②—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③— 앞으로 <아트뷰>에서 읽고 싶은 주제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④— <아트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이나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아트뷰>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해당 호 <아트뷰>를 발송해드립니다.

<아트뷰>는
성남아트센터 관객, 시민 여러분을 위한
문화예술 매거진입니다.
성남아트센터 시설 곳곳에서 언제나
<아트뷰>를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이메일(nam@snart.or.kr)이나
전화(031-783-8024)로 연락 바랍니다.
• 별도의 개인 정기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와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에서 <아트뷰>를 만나보세요.
<아트뷰>를 무료 잡지 콘텐츠로 제공합니다.